



■일시: 2016년 5월 22일 월요일 ~ 5월 24일 수요일

■장소: 부산, 통영 일대

이 책자는 3학년 반 번

의 것입니다. (주우면 돌려주세요~)



• 차 • 례 •

■ 일정표

■ 유의사항 및 준비물

■ 부산

● 부산	9
● 부산역	10
● 용두산 공원	12
● 부산 근대 역사관	14
● 국제시장	15
● 비프(BIFF)광장	18
● 광복로 패션거리	19
● 자갈치시장	21
● 부평 강통시장	22
● 40계단	24
● 보수동 책방 골목	25
● 태종대	28
● 동백섬	32
● 해운대 해수욕장	36
● 센텀시티와 광안대교	36
● 초량 이바구길	37
● 담장 갤러리	37
● 168계단	37
● 김민부 전망대	41
● 이바구 공작소	42
● 이바구 충전소	43
● 장난감 다락방	44
● 장기려 기념관	45
● 유치환의 우체통	46
● 차이나 타운	47
● 소림사	48



통영

● 통영	50
● 미륵산 케이블카	51
● 서피랑	55
● 동피랑	58
● 남망산 조각공원	61
● 강구안	64
● 통영 시립 박물관	69
● 세병관	70
● 충렬사	72
● 서호시장	73
● 중앙전통시장	74
● 김춘수 생가	77
● 박경리 기념관	79
● 전혁림 미술관	80
● 청마문학관	81
● 윤이상 기념관	82

부록

● 부산과 통영, 마을 만들기	84
● 리플렛 붙이는 곳과 일기장	87
● 수학여행을 마치고	91
● 수학여행 자료 집을 만들기까지	92



●일●정●표●

일자	이동수단	시 간	일 정
1일차 (5월 22일)	KTX 전용버스	7:20~	서울역 집합/인원점검 및 탑승
		7:54~11:00	KTX이동(서울역-부산역)
		11:00~11:30	버스승차 및 인원점검
		11:40~3:10	용두산 공원 일대 답사
		3:50~5:20	태종대·다누비 열차이용
		3:30~6:30	석식
		6:40~7:50	숙소도착, 객실배정 및 개인정비
		8:00~9:00	바닷가 산책
		9:00~9:50	숙소 내 자유시간
		9:50~	취침준비 및 취침
2일차 (5월 23일)	전용버스	6:30~8:00	기상(6:30), 조식 및 활동준비
		8:00~10:30	버스이동
		10:30~12:00	통영 미륵산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12:00~12:20	버스이동
		12:20~4:00	강구안, 동피랑 벽화마을/자유중식
		4:00~6:20	버스이동
		6:20~7:10	석식
		7:30~9:00	장기자랑
		9:00~	숙소이동/자유시간/취침준비 및 취침(11:00~)-환자파악 및 인원점검
3일차 (5월 24일)	전용버스 KTX	6:00~8:20	기상 개인정비 및 조식, 숙소정리, 체크아웃
		8:20~8:30	버스이동
		8:30~10:00	동백섬 일대 산책
		10:00~10:30	버스이동 및 하차
		10:30~12:50	차이나타운 및 초량 이바구길 부산역일대/자유중식
		12:50~1:20	최종 인원 점검 및 KTX 탑승
		1:20~4:30	KTX이동(부산역-서울역)
		4:30~	서울역 도착 및 해산

여행은 다른 문화, 다른 사람을 만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다. - 한비아
(5반 유성수, 이승호, 방서인, 정승우)

• 유 • 의 • 사 • 항 •

(4반 김지성)

식사

1. 자기가 먹은 쓰레기는 치우기
2. 옆에 사람한테 맞지 않도록 조용히 먹기

도로 및 차량이동시 안전

1. KTX에서 창 밖으로 던져지지 않게 시끄럽게 하지 않을 것
2. 단체 활동에서 혼자 돌아다니지 않기 (부산 미아가 될 수도 있다.)
3. 차에 치어서 하늘을 나는 경험을 하지 않게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

마을 유적 방문시

1. 유적에 함부로 손대지 말 것 (용돈이 경찰한테 들어갈 수 있음.)
2. 다른 관광객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시끄럽게 얘기 하지 않을 것

케이블카 이용시

1. 케이블카에서 뛰지 말 것
2. 케이블카 문 닫힐 때 조심할 것
3. 케이블카에 이상이 생겼다고 케이블카에서 뛰어내리지 않을 것
4. 고소 공포증이 있다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 것 (진정, 진정)

(2반 권소연)

기차에서 지켜야할 사항

1. 신난다고 소리 지르지 않기
2.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돌아다니지 않기
3. 기차 안에서 먹은 음식은 깔끔히 치우고 나가기

꼭 지켜요!!



숙소에서 지켜야할 사항

1. 신난다고 밤에 소리 지르지 않기(숙소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님!!)
2. 물건 훼손하지 않기
3. 이성의 숙소에 가지 않기

4반 장나영



●주●의●사●항● (3반 양경식)

모일 때의 예의~ 1. 늦지 않기. 2. 먼저 와서 소란피우지 않기. 3. 조용히 앉아있기.	KTX탈 때의 예의~ 1. 차례차례로 탑승하기. 2. 신속하게 탑승하기. 3. 선생님 말씀 듣기 4. 쓰레기 두고 내리지 않기.
버스 탈 때의 예의~ 1. 얼굴 내밀지 않기.(염라대왕과 안면인사 나눌 수 있음) 2. 자기자리에 앉기. 3. 쓰레기 두고 내리지 않기. 4. 넘어지지 않게 타기. 5. 멀미할거 같으면 미리미리.	모둠 활동할 때의 예의~ 1. 싸우지 않기. 2. 일이 발생했으면 선생님께. 3. 소란 피우지 않기.(선생님들이랑 같이 다닐 수 있음.) 4. 모둠 활동 열심히 참여하기.(수행평가임!) 5. 다른 모둠과 만날 때 싸우지 않기.

**수학여행은 즐거울 수도 있지만 다치면 좋지
않잖아? 그니까 항상 안전! 안전이 최우선이다.**

뭔가 공간이 남아서 내는 문제 (2반 이강현)

1. 이중에서 수학여행 시 취해야할 행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 1) 버스의 속력이 얼마나 빠른지 체감하기 위해 창문 밖으로 손을 뻗는다.
- 2) KTX가 얼마나 긴지 알아보기 위하여 기차 복도를 힘차게 달려본다.
- 3) 친구들과 몰래 술 사와서 마시고 놀다가 선생님한테 들켜서 두드려 맞는다.
- 4) 밤새며 놀고 다음날 아침에 전혀 피곤하지 않은 척 하루 종일 수학여행 코스를 돌아다닌다.

2. 유적지나 마을을 둘러볼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고르시오

- 1)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 2) 유적지는 높은 가치가 있으니 중요한 물건 하나 슬쩍해서 돈좀 번다.
- 3)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정해진 위치만 돌아다닌다.
- 4) 아름다운 벽화는 눈으로만 감상한다.

3. 사고 대처 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 1) 숙소에서 화재가 났을 시 가만히 있으라는 멍청한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대기한다.
- 2) 친구 한 명이 사라졌을 때 자기가 찾아온다면서 대열에서 이탈한다.
- 3) 친구가 다쳤을 때 119에 신고하고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한다.
- 4) 날카로운 물건에 찔렸을 때 아프긴 하지만 뭔가 하긴 귀찮으니 침 바르고 낫기를 기다린다.

+ 지금까지의 유의사항 퀴즈 (4반 김재윤)

* OX퀴즈

1. 차안에서는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 안전띠를 끈다. (O , X)
2. 식당에서는 먹으면서 이야기는 되도록 적게 한다. (O , X)
3. 숙소에서는 숙소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O , X)
4. 공공장소에서는 자유롭게 뛰어다닌다. (O , X)
5. 시간이 없을 때는 무단횡단을 해서라도 간다. (O , X)
6. 선생님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O , X)
7. 취침시간에 몰래 자리를 바꾼다. (O , X)
8.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벌러덩 누운다. (O , X)
9. 쓰레기는 아무데나 던진다. (O , X)
10. 마을답사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O , X)
11. 학생답게 음주&흡연은 하지않는다. (O , X)

우리 다 함께 약속합시다!!!!!!!!!!



나 ()은/는
2017년 05월 22일 ~ 24일 수학여행 동안
위 서약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3반 김다은, 김민지, 이윤주, 강은희, 김희주)



챙겨야 할 것들 (3반 양경식)

- 반티 ()
- 여분의 옷 ()
- 속옷, 양말, 잠옷 ()
- 세면도구 ()
- 수건 ()
- 핸드폰 및 충전기 ()
- 돈(점심, 교통비, 여분) ()
- 개인적 물품(로션, 약 등) ()
- 개념 및 정신줄 ← 가장 중요! ()

준비물 (1반 정지은)

반티 () 돈() 상의 2~3벌 () 하의 2~3벌 ()
속옷 () 양말 () 잠옷 () 머리끈 ()

세면도구() 샴푸 () 수건 () 린스()

전자기기 충전기 () 이어폰 () 보조 배터리 ()

비올 때를 대비한 준비물(우산, 비옷) 바닷가를 갈 때 필요한 준비물(샌들, 랜턴)

수학여행동안의 각오! (3반 양경식)

1. _____
2. _____

부산 (3반 김다은 김민지 이윤주 강은희 김희주)

부산은 한적한 어촌에서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무역항으로 성장하였다. 근대 이후 우리 역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도시로 서구 문물이 들어오는 개항장이었고, 6·25 전쟁 중 임시 수도였다. 현재 부산은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의 중심 도시이며, 해수욕장으로 대표되는 관광 도시이고, 매년 부산 국제 영화제가 개최되는 문화 도시이다.



위치	대한민국 남동단에 있는 광역시
면적(km ²)	765.94
행정구분	15구 1군
꽃	동백꽃
나무	동백나무
새	갈매기

(2반 김나경)



부산은 우리나라 제1의 무역항이자, 제2의 도시야. 도로, 철도, 해상 교통이 고루 발달하기도 했어. 인구는 352만여 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아. 부산 동쪽은 대한 해협(우리나라와 일본 규슈 사이에 있는 육지 사이에 끼어있는 좁고 긴 바다)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하고 있고 부산을 가로지르면서 남해로 빠져 드는 낙동강 양쪽에는 넓고 기름진 평야가 발달해 있어. 그리고 부산은 해안선 가까이에 산이 있어서 태종대 같은 암석 해안이 발달했

어 부산은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로 기온의 변화가 적고 비교적 따뜻한 지역이야. 겨울 평균 기온이 3.8℃ 정도로, 제주도 다음으로 겨울철이 따뜻하다고 해. 대신 연평균 강수량이 1,400mm 안팎으로 비가 많이 오는 편이고, 겨울엔 북서풍, 여름엔 남서풍과 해륙풍이 불어서 바람도 많이 불어.

부산에 대해서 (4반 김진아)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무역항이야! 인구는 약 355만 7716명이고, 면적은 765.82km² 야~ 부산의 시화는 동백꽃이고, 시조는 갈매기야. 부산의 유명 관광지로는 태종대, 동백섬,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부평깡통시장, 용두산 공원 등이 있어! 그리고 부산에서 유명한 먹거리로는 씨앗 호떡, 돼지국밥, 밀면, 비빔당면 등이 있어~~



부산역 (4반 정대현)



다노츠 킨코가 설계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경부선과 경부 고속선의 기차역.

1908년 개역 당시 부산역은 현재 위치보다 조금 남쪽에 있었다. 1910년 완공되었고 르네상스 양식의 화려한 건축양식으로 지어졌었다. 당시 1층은 역무실로, 2층은 호텔로 사용하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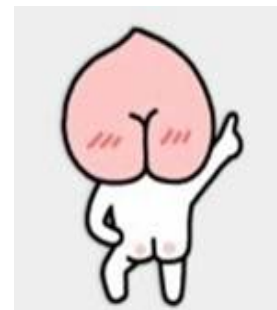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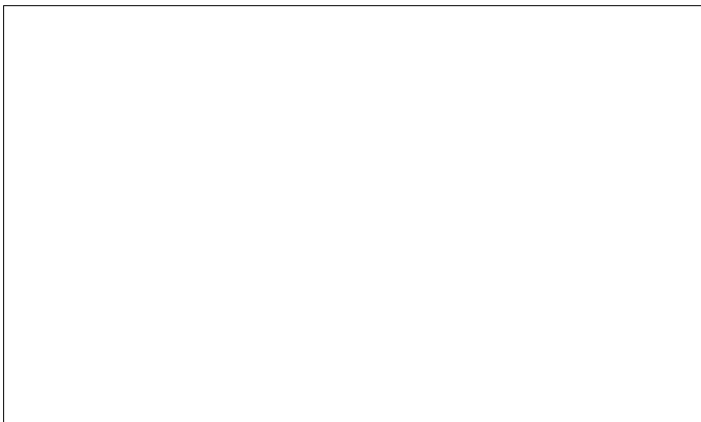
하지만 1953년....그 화려했던 부산역의 모든 것들이 불에 타 버렸다. 화재가 발생한 1953년 11월 27일은 그해 7월 27일에 휴전협정으로 한국 전쟁이 휴전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특별시로 돌아간 지 4개월째 되는 날이었다. 부산 일대는 한국 전쟁 당시 조선 인민군이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이었고, 정부가 전쟁을

피해 일찍 내려왔기 때문에 전쟁 피난민이 많았다. 처음으로 화재가 시작된 중구 영주동 일대에는 피난민 판자촌이 밀집해 있어서, 조그마한 불에도 대형 화재가 날 수 있었다. 11월 27일 저녁 8시 30분경에 최초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후 바람을 타고 불길은 여러 곳으로 퍼졌다. 불길은 이튿날 6시 30분경에 잡혔지만, 재산 피해는 어마어마했다. 그 후 16년동안 신축이 되지 않고 있다가 1969년에 신축되었다. 신축된 건물은 과거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었다. 그러다 2004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지금의 유리로 둘러싸인 부산역이 나오게 되었다. 출처-(위키백과)

부산역사 (1반 남현준 연경모 장대한 유호재)

부산의 철도 역사는 1910년에 클래식한 르네상스식 벽돌 2층 구조로 중앙동에 처음 건립되었다. 이후 1969년에 초량동에 다시 신축했는데, 지금의 모습은 기존 건물을 2004년에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증개축해 완성한 것이다. 콘크리트 외벽에 휘어진 금속 원기둥을 덧대고, 그 앞면 전체를 투명한 유리로 마감해 투명성이 강조된 건물을 만들었다. 광장을 마주한 건물 표면 전체가 유려하게 휘어져 미래지향적인 동시에 거대한 선박 이미지를 띠어 부산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다. 바다 방향의 건물 반대편 벽면에도 대형 유리를 적용해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북항과 부산항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한다.

미션 부산역 앞에서 사진 찍기 (아래의 사진 포즈 하기) (4반 장나영)



나를 따라 해 봐 !

KTX에 대하여 (1반 김경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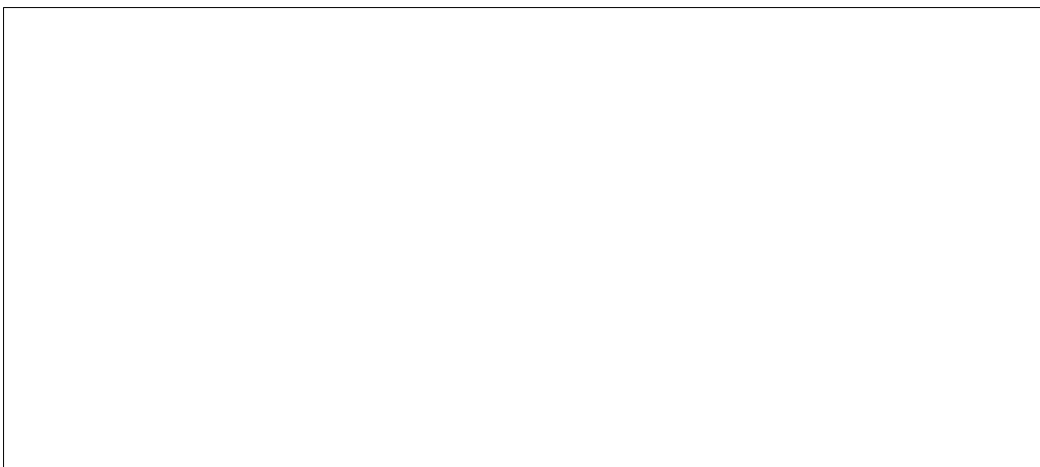
지난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의 개통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 고속열차이다. KTX는 프랑스 고속철도인 TGV의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차량은 TGV 제 3세대 모델(TGV-R)과 비슷한 규격이다. 1994년에 도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차량의 설계 구조는 당시의 기술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최고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이나, 동력집중식의 구조상 가속 능력은 비교적 떨어진다. 국내의 간선열차보다 열차의 폭과 길이가 조금

작으며, 관절대차(차량의 차량 사이에 대차 1개를 사용해 2대의 차량을 연결하고 지지하는 대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TGV보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수가 더 많아서, 한 번에 무려 900여 명(점보여객기의 두세 배)을 수송할 수 있다. 반면 터널 통과 시 일어나는 귀울림 현상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유럽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고정식 시트 때문에 한 동안 역방향 좌석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KTX는 몇몇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속도와 안락함으로 개통 초기부터 한국의 교통 체계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퀴즈 알맞은 내용에 선을 그어보자 (1반 김경민)

- | | |
|-------------------|-------|
| TGV의 기술을 도입해서 만들 | • 부산 |
| 경부선, 경부고속선의 종착역 | • KTX |
|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무역항 | • 부산역 |

미션 부산까지 오며 보았던 풍경 중 하나를 그려보세요. (1반 김지우)





용두산 공원 (4반 김진아)



우리가 부산에 도착해서 처음 온 곳은 용두산 공원이야! 옛날에는 울창한 소나무 사이로 바다가 보였다고 해서 송현산이라고 불렀어. 하지만 산의 형태가 바다에서 육지로 치고 올 라오는 거대한 용머리를 닮아서 용두산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용두산 공원 안에는 계절마다 다양한 꽃으로 장식되는 꽃시계가 있는데 인기있는 장소로 유명해. 또, 용두산 공원에는 용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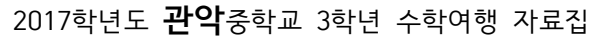
공원을 대표하는 건축물이자 부산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부산타워가 있어~ 부산타워는 높이가 120m이고 1973년에 세워졌어. 정말 높지 않니? 부산타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등대래! 그리고 타워 꼭대기에는 전망대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 갈 수 있어. 전망대에 올라가서 밖을 내려다보면 부산광역시 일대와 부산항과 영도 등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해.

용두산 공원의 역사 (4반 김진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이 용두산에 일본 신사를 세우고 작은 공원을 만들었어. 6.25전쟁 때 피난민들이 이 용두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2번의 대화재가 일어나서 소실되고 민둥산이 되었어. 그 후 나무심기에 주력한 결과 지금은 숲이 많은 시민공원으로 바뀌어졌어.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호를 따 우남공원으로 불렸던 공원은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자 용두산 공원으로 불리게 되었어.

용두산의 기념 유적들 (2반 홍석환,이강현,백준기,오승민,안지원)

이순신장 군동상		이 동상은 위기에 놓인 나라를 구한 구국과 충절의 상징인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을 기리기위해 만든 동상입니다.
백산 안희제 선생 동상		3·1 운동 직전 기미육성회를 설립, 동아일보 창간주제 중외일보발간 등의 일제의 침략이라는 민족적 위기상황에서 민족교육, 민족기업육성, 항일언론 등 다방면에 걸쳐 국권회복을 위해 국내외에서 활동한 민족독립 운동가입니다.
용두산 공원비		용두산공원비는 일제 말기인 1944.1.8.에 총독부에서 용두산공원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이를 상징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자연석으로 제작하여 1944. 1. 18. 설치하였습니다.

[illegible]



부산 근대 역사관

(2반 홍석환, 이강현, 백준기, 오승민, 안지원)



일제강점기인 1929년 식민지 수탈 기구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 지점의 건물로 신축되어 사용되었고, 광복 후인 1949년부터는 미국 해외 공보처인 부산미문화원으로 사용되었다. 이 후 부산 시민들이 끊임없이 반환을 요구해 1996년 미문화원이 철수했고, 1999년 정부로 반환된 것을 그해 6월 부산시가 인수했다. 이 건물은 격동의 근현대사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건물로 2001년 부산시기념물 제 49호로 지정되어 2003년 부산근대역사관으로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자료발굴, 기획전 개최, 사회교육을 하고 있다.

부산근대역사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인의 불법적인 토지침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29년부터 건설이 추진되었는데 최초의 거류지였던 용두산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식민지배의 상징으로 근대적인 양식 건축물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부산근대역사관이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까지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세워졌다.

부산현대역사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부산은 여러 복잡한 일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남북은 미군정 당국이 일제 강점기의 것을 그대로 잇도록 하였다.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부산 직할시에서 부산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었고, 땅도 확장되었다. 부산은 2001년 부산 아시아 경기 대회 개최, 2005년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 개최등으로 중심 도시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미션 역사관을 둘러보고 유물 한 가지 그리고 특징을 쓰시오.

미션 각 층에 무엇이 전시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써보자.

1층	
2층	
3층	

국제시장 (5반 이승호 유성수)



1945년 광복이 되자 일본인들이 철수하면서 전시 물자를 팔아 돈을 챙기기 위해 국제시장 자리를 장터로 삼으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한국전쟁 후 피난민들이 장사를 하며 활기를 띠었고, 미군의 군용 물자와 함께 부산항으로 밀수입된 온갖 상품들이 이곳을 통해 전국으로 공급되었다. 이른바 도떼기시장이 바로 국제시장이었다. 기계·공구·전기·전자류·주방 기구·의류가 주요 품목인 도·소매 시장으로 미로처럼 얽힌 골목에 식용품·농수축산품·공산품 점포들이 들어서 있다.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는 부산의 유명한 상징이자,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물 시장이다. 영도대교 바로 옆의 건어물시장에서부터 충무동 공동 어시장까지를 통틀어 자갈치시장이라 부르는데 자갈치시장이라는 명칭은 일대에 자갈이 많아 자갈치라고 부른다는 설과 생선 이름인 갈치에서 유래하였다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진다. 6·25전쟁으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여성들이 자갈치시장에 모여 장사를 하기 시작해 ‘자갈치 아지매’라는 이름도 생겨났다. 자갈치 아지매들의 무뚝뚝하면서도 정겨운 사투리를 들으며 살아서 펄떡이는 물고기들, 싱싱한 해산물들을 구경하며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시장통을 걷는 것이 자갈치시장의 매력 포인트다. 일제시대의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어물시장과 부두, 그리고 멋지게 단장한 자갈치 시장 건물 뒤편의 수변공원은 장을 보러 나온 사람보다 관광객들로 붐빈다.

아기자기한 조형물과 나무 데크가 인상적인 수변공원에서는 유명한 영도다리가 왼쪽으로 보이고 코앞에는 영도가 우뚝 서 있다. 선착장에서 통통배를 타면 영도로 뱃길 여행을 해볼 수도 있다. 주머니 사정에 따라 다양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싱싱한 해산물이 자갈치시장의 자랑이고 생선구이도 유명해 그날 잡힌 싱싱한 생선을 구워 내는 식당도 만날 수 있다. 부산 시민들이 즐기는 곱장어 구이와 곱창 구이도 빼 놓을 수 없는 명물 먹거리. 바다와 먹거리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삶의 여행지가 바로 여기서다.

국제시장의 역사 (1반 남현준 연경모 장대한 유호재)

부산국제시장이 있는 신창동은 조선시대에 초량왜관이 있던 곳으로, 일본과 인연이 깊다. 국제시장의 역사는 해방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는 일본인들이 넘긴 물건과 해외에서 돌아온 동포들이 가져온 물건들이 거래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도떼기시장이라 불렸으며, 1948년에 건물을 세우고 자유시장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그 이후 점점 규모가 커지고 미군들의 군수물자나 외국의 물건까지 취급하게 되면서 1950년에 국제시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초량 왜관 (1반 남현준 연경모 장대한 유호재)

왜관은 조선시대에 해안가에 나타나 노략질을 일삼는 왜구를 합법적인 교역 대상으로 삼아, 백성들의 피해를 줄이고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왜구의 노략질이 줄어들지 않아 쓰시마를 정벌하고 왜관을 폐쇄하기도 했지만 1423년 부산포와 내이포(지금의 진해), 염포(지금의 울산)에 왜관을 두는 삼포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이들 왜관이 폐쇄되었고, 이후 일본의 요청으로 1678년 초량에 왜관을 설치했다.



국제시장 영화 (3반 이윤주)

2014년 12월 17일에 개봉한 영화로 국제시장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이다. 개봉 12일째 400만을 돌파하고, 개봉 17일만에 600만, 개봉 25일만에 900만 명을 넘겼으며, 2015년 1월 13일에 천만을 돌파해 해운대에 이어 윤제균 감독이 제작한 두 번째 천만영화가 되었다.



국제시장의 네 시장 (1반 김지우)

구제골목	외국이나 국내의 중고 의류를 주로 거래하는 장소이다. 구제 골목에서 팔고 있는 의류와 신발은 대부분 수입된 것이다. 직접 점포를 운영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선반과 매대를 대여해 판매 수익을 나누는 프리마켓이 존재한다.
아리랑 거리	주로 전통 공예품과 특산품을 파는 상점들이 모여 있는 상가 건물형 시장으로, 2001년 11월에 테마거리로 지정되었다. 아리랑거리는 외국 관광객이 주를 이룬다. 그 이유로 전통 공예품 뿐 아니라 연예인 관련 상품의 판매도 활발하다.
창선동 먹자골목	창선동 먹자골목에는 다양한 포장마차와 좌판이 위치해 있어서 부산에서도 대표적인 먹자골목으로 성장했고, 소문이 나면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 영화와 TV에 여러 번 소개되었다.
만물의 거리	1960년대에 개설된 상가형 상설시장이다. 주로 판매하는 잡화와 침구, 가방, 음향기기 등을 판다. 만물의 거리는 2005년 8월에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았다.

퀴즈 파는 물건과 시장을 옳게 짝지으세요. (30124 김지우)

구제골목	•	•	포장마차 등
아리랑거리	•	•	전통 공예품
창선동 먹자골목	•	•	여러 잡화
만물의 거리	•	•	외국의 중고 의류

아리랑 거리 (2반 류현진, 김상연, 조웅비, 주이찬)

6·25 전쟁 시기 1950년에 피난민들이 중구 신창동 3가에서 자리를 잡고 장사를 시작하여 국제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당시 미군의 군용 물자와 함께 밀수입된 온갖 상품들이 거래 되었기 때문에 국제 시장은 일명 ‘도떼기시장’으로 불린다. 국제 시장 주변으로 특정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중 전통 공예품 및 특산품을 파는 상점들이 모여 있는 시장을 ‘아리랑 거리’이라고 한다.



먹자골목 (2반 김정현)



창선동 먹자골목 또한 국제시장과 역사를 같이한다. 국제시장이 개설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음식점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거리가 형성되었다.

창선동 먹자골목에는 다양한 포장마차와 좌판이 위치해 있어서 부산에서도 대표적인 먹

자골목으로 성장했고, 소문이 나면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

창선동 먹자골목은 아리랑거리 입구에서 중구로 30번길을 따라 포장마차가 늘어서 있고 골목의 안쪽에는 좌판이 펼쳐져 있다. 골목 입구에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호떡집이 있다. 좌판은 오후 내내 골목을 가득 채웠다가 밤이면 모두 사라진다.

미션 누가 봐도 맛있어 보이게 음식을 먹는 사진 찍어보기 (1반 최승일)



퀴즈 TV예능프로에 나와 인기를 끌었던 먹자골목 대표 먹거리는? (2반 김정현)

- ① 주사위 스테이크 ② 곱창 ③ 수제 츄러스 ④ 씨앗호떡 ⑤ 밀면

퀴즈 단어 찾기 (1반 조연서)

우	실	구	면	데	로	하	수	부	산
속	레	요	자	주	바	치	셀	북	죽
유	소	민	유	조	결	비	빔	독	옥
가	학	주	시	사	아	카	푸	코	유
종	하	찌	장	소	각	두	대	씨	히
비	프	광	재	파	축	겨	도	앗	줄
해	항	작	네	국	제	시	장	호	흑
운	나	유	부	전	골	통	영	떡	또
대	수	학	여	행	굴	누	셔	녀	역
밀	면	도	열	맛	구	자	다	솔	카

< 단어 찾기 >

1948년 **전에** 부산국제시장은 무엇이라 불렀는가?

1948년에 부산국제시장은 무엇이라 불렀는가?

먹자골목의 유명한 먹거리 3가지는?

(ㄹㅇ, ㅅㅇㅎㄷ, ㅇㅂㅈㄱ)



비프(BIFF)광장 (1반 권소연)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가 개최되고, 극장가를 새롭게 단장하고 그 일대를 BIFF광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우리나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와 새로운 문화관광명소로 새단장하여 국제적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남포동 (구)부영극장에서 충무동 육교까지 428m에 이르는 도로를 ‘스타의 거리’와 ‘영화제의 거리’로 나누어 조성하고 있다.

스타의 거리



매년 수 만명의 사람들이 빠져드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곳이다. 좁은 공간 때문에 주요 야외행사는 해운대로 옮겨갔지만, 남포동 ‘스타의 거리’는 여전히 잔치의 흥을 돋우는 큰 요소이다. 또한 스타의 거리에서는 매년 부산국제영화제의 수상자들의 핸드 프린팅이 설치되어 있다. 1998년부터 핸드 프린팅이 시작되었는데 이 해에는 씨에진[중국 감독], 제레미 키아로스타미[이란 감독], 김기영[한국 감독] 등 6명이 등록하였다. 이후에도 2002년에 신상옥[한국 감독], 잔모로[프랑스 여배우] 등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총 45명의 핸드 프린팅이 등록되어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새로운 작가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영화의 비전을 모색한다는 취지 아래 1996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영화제이다. 이 영화제의 목적은 아시아 영화를 발굴, 소개하여 아시아 영화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부산지역 영상산업유치와 활성화를 도모하며, 문화 예술 도시로서의 이미지 고양 및 문화상품으로서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관광객을 방문하도록 만든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아시아 영화감독들의 신작 및 화제작을 소개하는 ‘아시아 영화의 창’, 아시아 신인감독들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장편영화들을 경쟁시키는 ‘새로운 물결’, 최신 한국영화를 소개하는 ‘한국영화 파노라마’, 최신 화제작과 세계적인 감독들의 최신작을 소개하는 ‘월드 시네마’,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실험영화로 구성된 ‘와이드 앵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퀴즈 BIFF는 무엇의 약자일까? (1반 권소연)

퀴즈 BIFF광장에는 1924년 한국 최초의 영화제작사가 설립되었다.

그 제작사의 이름은? (3반 오진욱)

1.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 2. 보래관 3. 초량좌 4. 조선 씨네미카

미션 핸드 프린팅을 보고 몇 명의 이름만 적자~ (3반 양경식 박현수 박태균 최준영)

A : _____

미션 BIFF 거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손바닥과 손맞춤하기!!!(인증샷)



광복로 패션거리 (4반 장나영)



광복로 패션거리는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에 있는 유명 패션 브랜드 상점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야. 하지만 이곳 광복로 패션거리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개발된 지역으로, 일본인이 가장 많이 살았던 곳이었어. 광복 후 조국의 광복을 맞는다는 뜻에서 광복동이 되었으며, 미화당 백화점[1953년 개점 하여 부산의 대표 향토 백화점으로 운영되다가 1997년 폐점된 곳]과 고급 의상실이 있는 부산의 중심 거리가 되었어!

1970년대까지 일본의 최신 패션을 한국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던 곳으로, 부산뿐 아니라 한국 최고의 패션 거리였어!

광복로 패션거리의 역사 (4반 장나영)

그거 아니? 현재의 광복로 도로는 원래 하천이었어! 하천으로 있을 때는 송현천이란 이름을 지니고 있었대. 조선 후기 초량왜관 시대에 왜관 안의 하천이 있었고, 1876년 개항 후에는 일본인들이 살게 되면서, 하천변에 벚나무를 심어 앵천으로 불리게 되었어. 하지만 초량왜관에 일본인 거주자가 만 명 이상으로 늘자, 앵천이 불결해지고 악취가 나서 앵천을 없애게 되었대. 그래서 오늘의 광복로 도로가 생겨났고 광복로는 일제강점기 때 장수통 또는 변천정으로 불리었는데, 광복 후에 광복동으로 이름이 바뀌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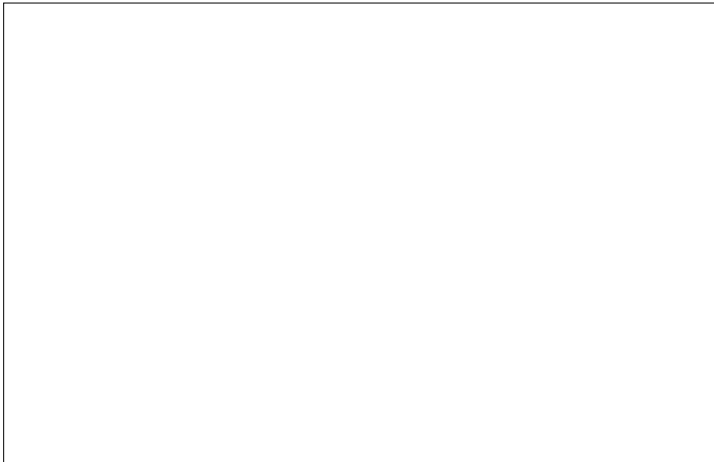
광복로 패션거리의 구성 (6반 김서현)

코오롱 모드, LG 패션, 에스에스 패션, 서광 모드, 애희안, 모두스 비벤디, 유니온 등 다양한 패션 매장들이 늘어서 있고, 곳곳에 카페가 자리하였다. 2013년 현재는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도로에 투썸 플레이스 등의 카페와 의류 매장 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광복로 입구에서 구 미화당 백화점까지 길 중간에 용두산 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조형물이 조성되어 있고, 독특한 형상의 가로등이 거리 전체에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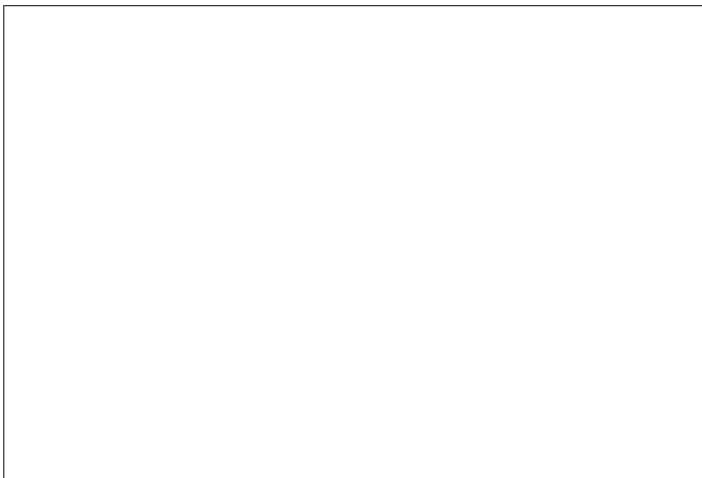
퀴즈 ox퀴즈 (6반 김서현)

1. 현재의 광복로 도로는 원래 바다였다. ()
2. 광복로 패션거리에서 많은 축제들이 열린다. ()
3. 광복로 패션거리는 일본이 많이 살았었다. ()

미션 광복로 패션거리를 그려보자 (광복로 패션거리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서 붙여주세요!) (4반 장나영)



미션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찍거나 그리기! (6반 김서현)



자갈치시장 (5반 김영옥 이경섭 이재열 강효리 김하늘)

부산 자갈치시장은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다.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라는 광고문구로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인 어시장으로 회를 비롯한 다양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다. 영도대교 바로 옆의 건어물시장에서부터 충무동 공동 어시장까지를 통틀어 자갈치시장이라 부르는데 자갈치시장이라는 명칭은 일대에 자갈이 많아 자갈치라고 부르다는 설과 생선 이름인 갈치에서 유래하였다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진다. 6·25전쟁으로 생활 전선에 뛰어든 여성들이 자갈치시장에 모여 장사를 하기 시작해 ‘자갈치 아지매’라는 이름도 생겨났다. 주머니 사정에 따라 다양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싱싱한 해산물이 자갈치시장의 자랑이고 생선구이도 유명해 그날 잡힌 싱싱한 생선을 구워내는 식당도 만날 수 있다.

신축건물조형에 간략한 소개

- 1번 날개 : 도약-(갈매기가) 육지로부터의 도약
- 2번 날개 : 비상-(도약한 갈매기가) 하늘로의 비상
- 3번 날개 : 활공-(비상한 갈매기가) 푸른 하늘에서의 활공



부산 자갈치 시장의 어원 (1반 연경모 장대한 남현준 유호재)

자갈치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남포동의 옛 이름은 남빈(南濱)이었다. 남빈은 남쪽의 물가라는 뜻으로 주먹 크기의 굵은 자갈들이 해안가에 깔려 있는 아름다운 어촌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매립과 매축이 이루어지며 남항이 건설되면서 포구, 항구가 있다는 뜻의 남포(南浦)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때까지는 남빈정으로 불렸고, 남포동이 된 것은 해방 이후의 일이다. 예전에 해안가에 널려 있던 자갈과 어시장에서 팔리던 물고기를 의미하는 ‘치’자가 붙어 자갈치라는 이름이 되었다.

퀴즈 자갈치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 쓰시오 (6반 김승현)

①

②

미션 자갈치 시장에서 처음 보는 생선/어패류 사진 찍고 그 특징을 알아보자. (6반 김승현)



부평 갯통시장 (4반 김진아)



부평 갯통시장은 부산의 중심에 자리한 전통시장이야~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 부평 갯통시장은 왜 갯통시장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아니? 미군 부대에서 나온 통조림 같은 갯통 제품을 많이 거래하고 판매했기 때문에 갯통 시장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2013년부터 국내 최초로 개장한 갯통야시장은 (저녁마다 야시장이 열려!)세계의 다양한 전통음식과 먹을거리를 다양하게 맛 볼 수 있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어. 2017년 현재 부평갯통야시장은 평균적으로 평일 3,000여 명, 주말에는 7,000여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갯통시장의 역사 (2반 김정현)



부산 중구의 부평동이 발전한 것은 1876년 강화도조약에 의한 개항 이후로,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시가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부평동에는 과거부터 열리던 장이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그곳에서 장을 보게 되면서 일한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설시장이 개설되었다.

일제가 정한 시장규칙에 따라 1915년 일한시장은 부산부에서 운영하는 공설시장으로 바뀌었고, 장옥도 새롭게 정비해서 부평정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부평정시장은 국내 최초의 공설시장으로 1920년대 시장의 규모를 넓혀가며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 해방으로 일본인들이 물러간 이후에는 부평시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들을 취급하면서 장세를 키웠다.

부평시장은 베트남전쟁 특수로 크게 성장했는데, 당시 미군의 식량을 비롯한 다양한 군수품을 팔았다. 부평시장은 미군 물자인 통조림 등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갯통시장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또 1970년대 이후에는 일본을 통해 세계 각국의 물자를 들여와 판매해 큰 인기를 끌었다. 2013년에는 국내 최초로 야시장을 개설해 세계의 전통음식들과 먹을거리를 팔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부평 갯통시장의 먹거리 (4반 김진아)

비빔당면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맛이다. 매운 잡채라고 생각 할 수 있다. 부산에서 유명한 음식이니 한번쯤 먹어봐도 좋을 거 같다.
철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계의 신세계이다. 여러 종류의 맛이 있어서 골라 먹을 수 있다. 또, 철판 아이스크림 만드는 과정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가 쏠쏠하다.

이가네 떡볶이		백종원의 3대 천왕에 나와서 유명해진 분식집이다. 줄이 없는 날이 없고, 떡볶이는 물론 핫도그도 맛있다.
부산 어묵		부산은 역시 어묵이다. 시장 곳곳에 어묵집이 많고, 분식집에는 무조건 어묵이 있기 때문에 싸게 먹기 좋다.

퀴즈 빈 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2반 김정현)

부평강통시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39번길 32에 위치한 시장으로 ()과 ()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시장 중 하나이다.

미션 부평 강통시장 입구에서 찍은 사진을 붙이고 했던 일을 적어 보자. (2반 김정현)

퀴즈 단어 찾기 퀴즈 (강통시장, 떡볶이, 비빔당면, 어묵, 야시장, 일한시장) (4반 김진아)

장	다	을	진	구	소	다	군	비	송
시	가	인	장	소	기	도	빔	아	프
도	신	일	떡	종	지	당	다	강	호
시	구	도	노	볶	면	산	강	통	주
통	소	난	차	주	이	장	오	시	귀
어	종	소	리	주	샷	시	김	장	중
당	묵	족	소	밥	지	한	도	력	저
질	구	조	야	소	방	일	징	치	수
시	유	고	시	기	미	어	주	낭	주
단	력	방	장	종	구	식	포	구	지



40계단 (4반 정대현)

부산 중구에 위치한 문화명소. 한국전쟁당시 이 부근에 거주하던 피란민, 부두 노동자들의 애환을 기리기 위해 국민은행 중앙동지점부터 40계단까지의 거리를 '40계단문화관광테마거리'로 조성했다.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오프닝 신에 등장하여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40계단은 1950년 6·25 피난시절 교통·행정의 중심지였던 부산중구에 위치하여 많은 피난민들이 그 주위에 판잣집을 짓고 밀집해서 살았었고 바로 앞 부두에서 들어오는 구호물자를 내다 파는 장터로, 그리고 피난 중 헤어진 가족들의 상봉 장소로 유명했던, 피난살이의 애환을 상징하던 곳으로 1951년 박재홍이 부른 “경상도아가씨”라는 곡의 소재로도 사용되는 등 당시 영주동 뒷산, 동광동, 보수동 일대에 흩어져 살았던 10만이 넘는 피난민들에게는 가장 친근한 장소였다.



40계단문화관 (4반 송단아)

40계단 문화관은 부산시 중구에 있는 기념관 겸 복합 문화 공간이다. 한국 전쟁 당시의 피난민에 관한 자료를 주로 전시한다. 40계단 문화관이 있는 중구는 한국 전쟁 발발 이후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 판자촌이 형성됐던 지역이다. 이곳에는 피난민들이 특히 많이 몰렸던 40계단이라는 이름의 가파른 옛 계단이 있다.



(6반 이승엽)

1950년 한국전쟁 당시의 역사와 삶의 애환이 담겨 있는 40계단을 테마로 지역문화의 전통 과 정체성을 살리는 기념비적으로 건립된 복합역사문화공간으로 2003년 2월 12일에 개관 되었다. 이곳은 일상 속에서 편안히 찾아와 휴식과 문화체험을 향유하며 삶의 활력과 창의력을 키워 줄 문화공간인 「중구 문화의 집」과 중장년층에게는 아련한 추억을 전하고 자라는 청소년에게는 역사의 산교육장이 될 「40계단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5층 전시실은 1950년대 40계단을 중심으로 피난살이를 했던 피난민들의 힘겨웠던 생활상을 담은 사진과 생활용품 등이 전시되어있으며 6층 전시실에는 다양한 특별전시가 마련되어 있다.



퀴즈 (3반 양경식, 박태균, 박현수, 최준영)

Q1. “런닝맨”에서 이 곳을 찍으러 온 적이 있다! (O , X)

Q2. 진짜 40계단이 맞을까? 한번 세어보자. 몇 개 일까? A :

퀴즈 (4반 오진욱)

1. 40계단은 누구들에게 가장 친근한 장소였고 그 사람들이 40계단으로 온 이유는?

2. 40계단은 영화소재로도 사용됐다. 그 영화의 이름은?(2개중 1개만)



미션 (4반 오진욱) 40계단에서 정확히 절반 20계단인 곳에서 인증샷을 찍어라! (주의사항 : 층수를 다 셀 것,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계단이 전체적으로 보이게 찍을 것. 이런식으로





보수동 책방 골목 (1반 김혜림)



8.15광복 직후 오늘날의 국제시장이 태평양전쟁으로 주택가가 철거되어 빈터로 놓여 있을 때 일본인이 남기고 간 책을 난전을 벌여 팔았는데, 그 장소가 개인소유가 되자, 보수동 앞길로 책장사들이 한두 사람 자리를 옮겨 앉게 되면서부터 오늘의 골목이 형성되는 바탕이 되었다.

보수동 책방 문화 축제		전국 유일의 명물 거리 보수동 책방 골목을 열린 문화 공간으로 정착시켜 옛 명성을 되찾고 시민들에게 책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책방 골목 문화 행사를 개최하였다.
보수동 책방 골목 문화관		책 박물관에는 보수동 책방 골목 역사를 담은 사진과 50년대~70년대 유행하였던 책, 당시 인쇄 방법을 볼 수 있는 인쇄 시설, 희귀 도서, 책결상 등이 전시되어 있어 보수동 책방 골목의 유래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8.15 광복		대한제국이 붕괴되면서부터 1910년 국권을 빼앗긴 이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하여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날까지의 시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반일민족독립운동의 사상과 운동을 포괄하는 관념이다.
작은 음악회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하는 책방부산지역 대학동아리연합 5팀의 통기타, 클래식 연주회가 있는 작은 음악회. 음악을 즐기며 주변에 있는 벽화도 볼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top 3 (1반 김혜림)

1.성경 2.모택동 어록 3.해리포터

운영중인 서점 (3반 이윤주)

경희서점	효림서점	고서점	국제서적	연합서점	남신서점
남해서점	단골서점	대동서림	신천지서림	수정서림	대영서점
온달서점	동아서점	알파서점	동화서점	명성서점	동화나라
반석서점	보수서점	삼성서점	서울서점	성남서점	성문서점
우리글방	월드서점	정문서림	제일서점	지훈서점	청상서점
책의마음	충남서점	학문서점	학사서점	학우서점	한양서점
대우서점	반달서점	세기서점	중앙서점	한일서점	현우서점

보수동 책방의 특징 (6반 김서현)

약 70채가 되는 책방으로 중·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들이 많이 찾아 들어 학생들이 요구하는 헌책이 사들여지고 팔려가곤 하였어. 60년대 초 출판문화가 거의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는 학생과 지식인들이 자신의 헌책을 내다 팔고 다시 남들이 보던 헌책을 되 사오거나 헌 잡지를 구할 수 밖에 없었대. 이렇게 생겨난 보수동 헌 책방골목은 지금까지 전국에 몇 안 되는 유명한 책방골목으로 자리잡고 있어. 헌 책인 경우 책의 상태나 흥정에 따라 값이 매겨진다고 한대!

보수동 책방의 책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작은 책방은 약3만~5만권의 책을 소유하고, 큰 책방은 약20만~30만권을 소유하고 있대. 몇 년전에 전체 책방이 보유하고 있는 책을 세워봤는데 대략 400만권에 이른다고 한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고 상상이 안갈 정도로 놀랍지? 부산에 있는 광역시립시민도서관보다 약 여섯배를 더 갖고 있다고 하니 역시 유명한 장소야.

보수동 책방골목에서 취급하는 책은? (6반 김서현)

초·중·고 참고서 및 교과서, 아동도서와 소설류, 사전류·고서적·만화·잡지·외국도서·실용도서 등 모든 종류의 책을 취급하고 있다.



퀴즈 O X 퀴즈 (1반 김혜림)

1.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책이다. ()
2. 책 장사들이 한 두명씩 자리를 옮겨 생긴 것이 지금의 보수동 책방 골목이다. ()
3. 보수동 책방 골목에는 최신 책도 있다. ()
4.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책방골목문화행사가 이뤄지고 있다.()

퀴즈 위의 학습지를 잘 보고 다음 중 운영하지 않는 서점을 찾아 동그라미 하시오(8개) (3반 이윤주)

경희서점	효림서점	신서점	국제서적	연합서점	남진서점
남달서점	단골서점	대동서림	신천지서림	보석서림	대영서점
온달서점	동원서점	알파서점	동화서점	명성서점	동화나라
반석서점	보수서점	삼성서점	서울서점	성남서점	성문서점
우리글방	월드서점	정문서림	제일서점	지훈서점	청상서점
책의심장	충남서점	학문서점	학사서점	학우서점	한양서점
대우서점	반해서점	세기서점	중앙서점	한일서점	보검서점

미션 보수동 책방 골목을 보고 가장 인상 깊은 것을 쓰고, 이유를 적어보자(1반 김혜림)

미션 보수동 책방 골목 문화관에서 본 가장 인상깊은 것을 그려본다! (1반 김혜림)



태종대 (2반 김하은)





1972년 6월 26일 부산기념물 제 28호로 지정되었다가 2005년 11월 1일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 제 17호로 지정되었다. 영도의 남동쪽 끝에 위치하는 해발고도 200m 이하의 구릉지역으로, 부산 일대에서 보기 드문 울창한 숲과 기암 괴석으로 된 해식절벽 및 푸르 바다 등이 조화를 이룬다. 옛날에 신선이 살던 곳이라 하여 신선대라고도 부르며, 신라 태종무열왕 사후에 따라 현재는 태종대라는 호칭이 보편화되었다. 오륙도가 가깝게 보이고, 맑은 날씨에는 56km 거리인 일본 쓰시마섬이 희미하게 보이기도 한다.

볼거리 (5반 김지수 안유나 유지아 임다비 유동주)

(각 볼거리마다 얹힌 사연도 있으니 읽어보면 좋을 듯!)

- ①울창한 숲, 기암괴석(기이하게 생긴 바위와 괴상하게 생긴 돌)으로 된 해식절벽(파도, 조류, 해류 등의 침식으로 깎여 해안에 형성된 절벽) 및 푸른 바다 등 조화
- ②오륙도가 보이고, 맑은 날씨에는 일본의 쓰시마 섬이 해안의 흑 점(검은 점)처럼 보임
- ③영도등대가 해안절벽 위에 있고, 근처에 신선대바위·망부석 있음
- ④전망대에는 이곳 명물인 모자상(母子像)이 있음



태종대 볼거리 (1반 조연서)

신선바위		평평한 바위 위에서 신선들이 노닐던 장소였다고 하여 신선대라고 불립니다. 파도의 영향이 약한 지역이어서 파식대가 발달한 신선바위 아래 해안은 태종대를 만들어온 파도에 의한 침식 과정이 현재도 활발히 진행 중 이어서 흥미롭습니다.
망부석		신선바위가 있는 평평한 암석 위에 외로이 서있는 이 돌은 바다에 나간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던 여인이 돌로 변하였다 하여 불리는 이름으로 그 자태가 보는 이로 하여금 애뜻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모자상		전망대는 본래 자살바위라 불리던 곳으로 한때 구명사를 세워 세상을 비관하여 전망대에서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진한 사랑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여 삶의 안식과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6년에 설치하였습니다.
자갈마당		해안선을 끼고 산림과 곳곳에 깎아 세운 듯한 기암괴석이 있고 천연자갈로 덮인 자갈마당이 2개소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눈앞에 탁 트인 바다와 절경을 구경하면서 도시생활의 답답함을 시원스럽게 뚫어내는 상쾌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태종대는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1반 남현준 연경모 장대한 유호재)

해식절벽은 해식애(海蝕崖)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산지가 해안까지 연결된 암석해안에서 잘 볼 수 있다. 바다로부터 오는 계속되는 침식은 암석의 연약한 부분을 따라서 해식동굴을 만들기도 하며 오랜 기간 동안 파도의 영향을 받고 나면 해식동굴은 무너져 절벽이 후퇴한다. 암석의 강한 부분이 따로 남아있는 경우 해안선 가까운 곳에 시스택(Sea stack)이라 부르는 작은 바위섬으로 남기도 한다. 해식절벽의 규모는 육지를 이루는 암석의 종류, 바다의 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가 큰 해식애는 동해안 곳곳에 많이 나타난다. 황해안에는 구릉이 해안과 만나는 곳에서 볼 수 있다. 해식애가 잘 발달한 곳에는 경치가 아름다워 관광지가 된다. 울릉도 해안, 전라남도 홍도, 강원도 고성군의 해금강, 강원도 양양군의 낙산사, 부산광역시의 태종대는 해식애의 대표적인 예이다.

태종대 해안 지형 (2반 조성지)

해안 단구		태종대의 해안단구는 고도 50~52m, 27~30m, 18~20m, 9~10m, 4~5m 등 모두 5개의 높이로 나타나며 해수면 근처에서 파도에 침식되어 만들어진 뒤 융기하는 지반을 따라 물 위로 올라온 것이다.
융기파식대		태종대에는 파도에 의해 침식된 계단상의 바위들이 해안 곳곳에서 융기 파식대의 형태로 존재한다. 특히 신선바위 부근의 해안절벽을 살펴보면 같은 높이의 파식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며 아래쪽으로도 크고 작은 파식대를 많이 찾을 수 있다. 태종대 융기파식대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견되는 해안단구들과 함께 한반도 전체가 과거 지각변동을 거치면서 융기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해식애		태종대의 대표적인 지형경관인 해식애는 동쪽과 남동쪽에 모식적으로 나타난다. 이들 지역은 식생이 거의 없는 수직의 해식절애와 크고 작은 해식동 및 노치가 잘 발달되어 있다.
시스택		태종대의 해안에는 해식애가 후퇴하면서 잔존하여 남아 있는 암괴지형인 시스택도 다수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태종대에서 1.4km 떨어진 바다에 떠 있는 주전자섬(일명 생도) 역시 시스택이다. 이러한 침식지형들은 수직절리가 잘 발달하고 절리의 밀도가 높은 지역에 보다 현저하게 형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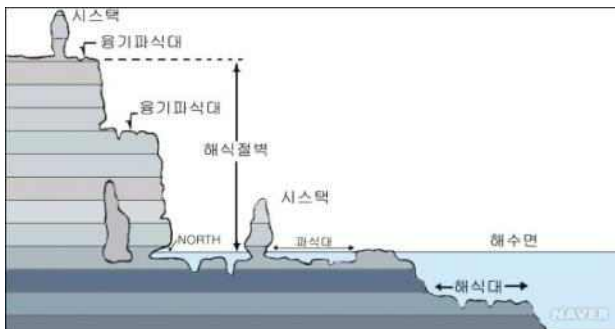
태종대 해안 지형 (2반 김하은)

<<겉모습>>



해식애 : 바다의 암석이 깎여 언덕 모양으로 생긴 지형으로 파도의 침식 작용과 풍화 작용에 의해 생긴 낭떠러지 (= 해식 절벽)

해안단구 : 오랜 세월에 걸쳐 파랑에 의하여 침식되어 형성된 넓은 파식대가 지반의 융기나 해수면 하강으로 인하여 육지화 된 계단상의 평탄 지형을 말한다. 태종대 해안단구는 파도에 침식된 계단상의 바위들이 해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융기 파식대의 형태로 존재한다.



파랑 : 바람의 의해 나타나는 바다의 물결

파식대 :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바다 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진 평탄한 암반면을 말한다.

암석해안 : 기반암석이 노출되어 있는 해안

해안단구 : 오랜 세월에 걸쳐 파랑에 의하여 침식되어 형성된 넓은 파식대가 지반의 융기나 해수면 하강으로 인하여 육지화 된 계단상의 평탄 지형을 말한다. 태종대 해안단구는 파도에 침식된 계단상의 바위들이 해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융기 파식대의 형태로 존재한다.

시스택 : 암석해안에서 기반암이 육지에서 분리되어 고립된 쫓대와 같이 생긴 바위섬이다.

태종대 다누비 열차 (1반 조연서)



'태종대 곳곳을 모두 누비며 경치를 감상한다'는 뜻의 관광열차 '다누비'는 자동차 바퀴가 달린 무궤도 열차로서 모두 3대가 순환 운행된다. 이 관광열차의 운행 구간은 4.3km, 평균 운행속도는 시속 15km, 승차인원은 96명이고 일반 차량은 통행이 제한된다. 이곳은 일제 때부터 오랫동안 군 요새지로 사용되던 관계로 일반 시

민의 출입이 제한되어 오다가 지난 1967년 건설교통부가 유원지로 고시하였고 뒤 이어 1969년에 관광지로 지정되었다.

다누비 열차 코스 (2반 김하은)

광장 → 전망대 →
영도등대 → 태종사
→ 광장입구





퀴즈 다음 중 태종대의 해안지형이 아닌 것은? (2반 조성지)

- ① 시스택 ② 파식대 ③ 해안 단구 ④ 해안대 ⑤ 해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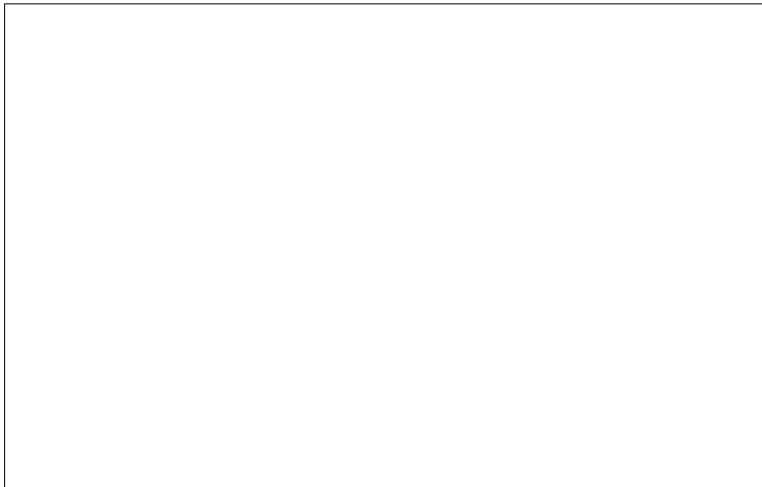
미션 자신의 센스를 마음껏 발휘해 태종대 3행시 지어보기!!! (1반 남현준 연경모 장대한 유호재)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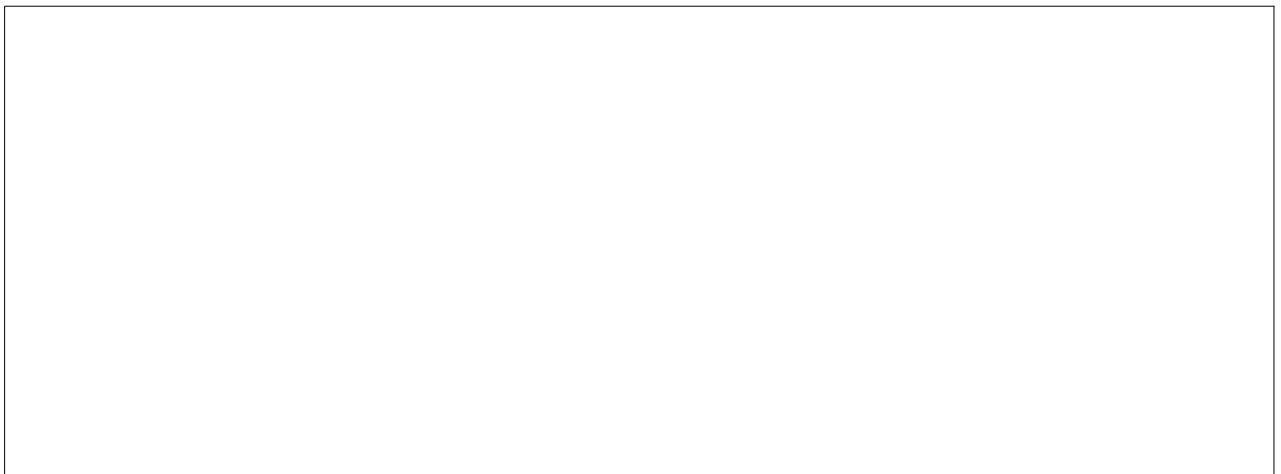
종:

대:

미션 태종대의 해안지형 중 하나를 골라 그림을 그려보자. (2반 조성지)



미션 등대 앞에서 모듬원들끼리 단체샷 찍기. (3반 박상호)





동백섬 (6반 최유정 남가영 김재빈 유성현 김진아)

1999년 3월 9일 부산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된 섬이야. 해운대해수욕장 서쪽에 있으며, 형태가 다리미를 닮았다 하여 '다리미섬'이라고도 한대. 예전에는 독립된 섬이었으나 오랜 세월에 걸친 퇴적작용으로 현재는 육지화된 섬으로, 해운대해수욕장의 백사장과 연결되어 있어. 옛날에는 동백나무가 많았으나, 현재는 소나무가 울창해. 섬에는 동백공원이 있고, 공원 내에는 신라 말기의 유학자 최치원의 동상과 시비(시를 새긴 비석.)가 있으며, 동쪽의 해변에는 최치원이 '해운대'라고 새긴 바위가 있어. 서쪽 해안에는 수산대학 부설 임해연구소가 있으며. 바닷가 암석 위에는 황옥 공주의 전설이 담긴 인어상이 있어. 1988년 서울에서 열린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 때 설치한 요트 경기장과 여러 위락시설도 갖추어져 있어.



동백섬 특징 (5반 김지수 안유나 유지아 임다비 유동주)

- ① 과거 독립된 섬 → 퇴적 작용(물, 바람에 의해 운반된 알갱이가 쌓임) → 현재 육지화된 섬, 해운대해수욕장의 백사장과 이어짐
- ② 과거 동백나무가 많음 → 현재는 소나무가 울창

동백섬 볼거리 (5반 김지수 안유나 유지아 임다비 유동주)

- ① 동백동원
- ② 공원 내 신라 말기의 유학자 최치원의 동상과 시비(시를 새긴 비석)가 있음
- ③ 동쪽의 해변(해안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벽)에는 최치원이 '해운대'라고 새긴 바위가 있음
- ④ 서쪽 해안에는 수산대학 부설 임해연구소가 있음
- ⑤ 바닷가 암석 위에는 황옥공주의 전설이 담긴 인어상 있음

누리마루 APEC 하우스 (6반 최유정 남가영 김재빈 유성현 김진아)




동백섬에는 누리마루 APEC하우스가 있는데 이곳은 2005년 11월 18~19일에 열린 제13차 APEC 정상 회담 회의장으로 해운대구 중동의 동백섬에 세운 건축물이다. 누리마루는 지상 3층의 건축물로 건물 전체의 조형은 한국전통의 건축인 “정자”를 현대적으로 표현했으며, 지붕의 형태는 동백섬의 능선을 형상화하였고, 내부장식은 한국의 창조적 전통문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지. 그 밖에 대들보 꼴로 만들어 전통 단청을 입힌 로비 천장과 대청마루 느낌을 받도록 한 로비 바닥, 석굴암 천장을 모티브로 설계한 정상회의장, 구름 모양을 형상화한 오찬장 등 건물 구석구석마다 한국 전통 양식이 짙게 배어 있어.

육계도 (1반 마은지 2반 최민서)



이름대로 본래는 섬이었지만 퇴적작용으로 육지에 붙은 반도 형태의 육계도가 되었어. 섬과 육지 사이의 얇은 바다에 모래가 퇴적하여 사주를 만들어 연결되면, 이러한 섬을 육계도라 하며, 사주는 육계사주라 한다. 한국의 호도반도, 갈마반도, 제주 성산일출봉이 예다.

성산일출봉

최치원 기념비		일대의 경관에 반한 최치원은 자신의 호 '해운'을 따서 그 지역 지명을 해운대라고 붙였다고 한다. 최치원이 직접 새겼다는 '海雲臺'(해운대) 석각도 동백섬 절벽 한편에 남아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치원의 동상과 시비가 동백섬 언덕에 생겼다고 한다. (4반 배서현)
동백공원		해운대해수욕장 남쪽 끝에 있는 동백섬을 공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1966년 9월 1일 공원대지로 지정되어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백섬은 동백나무와 소나무가 울창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이다. (3반 김민지)
인어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백섬 해안가 갯바위에 있다. 1987년 태풍 셀마로 인해 1974년 설치한 인어상이 유실되어 1989년 높이 2.5m, 무게 4톤의 청동 인어상을 다시 설치하였다. 인어상의 주인공은 황옥공주로 인도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이다. (3반 김민지)

최치원 (4반 배서현)

신라 골품제에서 6두품(六頭品)으로 신라의 유교를 대표할 만한 많은 학자들을 배출한 최 씨 가문출신이다. 최 씨 가문 중 에서도 이른바 ‘신라 말기 3최(崔)’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 성장하는 6두품 출신의 지식인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최치원에 얽힌 설화 (2반 김지수)

최치원은 857년에 신라의 6두품 집안에서 태어났다. 당시 신라는 골품 제도가 엄격한 사회였는데, 6두품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신라의 17관등(벼슬 등급) 가운데 여섯 번째인 아찬까 지 밖에 오르지 못했다. 최치원은 열여덟 살이 되던 해에 당의 과거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다. 이후 그는 높은 벼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명문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당시 당은 황소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농민 반란으로 인해 어지러웠는데, 이때 최치원이 황소의 잘못을 꾸짖은 ‘토황소격문’을 써서 화제가 되었다. 설화에 따르면 최치원의 글을 읽은 황소가 책상에서 나동 그라질 정도로 놀랐다고 하며, 황소의 난이 진압된 후 당의 황제는 최치원에게 상을 내리기도 했다. 최치원은 884년에 신라로 돌아와 벼슬을 얻었다. 그는 신라의 관리로 일하는 동안 진골 귀족들의 부패와 세금 강요로 인해 불만을 품은 백성들의 반란, 지방 세력의 등장 등 신라 사회의 문제들을 지켜보았다. 이에 그는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10개 항의 시무책을 담은 개혁안을 진성 여왕에게 올렸다. 시무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골품제에서 벗어나 유교의 정치 이념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그의 개혁안은 진골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쳐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

황옥공주 인어상 (2반 최민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백섬 해안가 갯바위에 있어. 1987년 태풍 셀마로 인해 1974년 설치한 인어상이 유실되어 1989년 높이 2.5m, 무게 4톤의 청동 인어상을 다시 설치하였어. 인어상에는 애뜻한 전설이 깃들여 있어. 인어나라 미란다국에서 무궁나라 은혜왕에게 시집 온 황옥공주가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황옥(黃玉)에 비친 고국을 보며 그리움을 달랬다는 것이야. 황옥공주는 인도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로, 대가야국 김수로왕의 왕비 허황후(許皇后)라고 보는 향토사학자들도 있어.

인어상 배경설화 (3반 김민지)

수로왕 : 나라가 없던 시절에 가락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각 촌락별로 나누어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늘의 명을 받아 9명의 촌장이 구지봉에 올라갔다. 그 곳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춤추고 노래하자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로 쓴 금빛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속에는 태양처럼 둥근 황금색 알이 6개 있었다. 이 알에서 남아가 차례로 태어났는데, 그 중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수로라 하였다. 주민들은 수로를 가락국의 왕으로 모셨고, 다른 남아들은 각각 5가야의 왕이 되었다. 이때가 42년(후한 건무 18)이었다고 한다. 수로는 즉위 후 관직을 정비하고 도읍을 정해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157년을 재위하다가 죽었다.



허황후 : 본래 인도의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이다. 공주는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김해 남쪽 해안에 이르렀다. 이에 수로왕은 많은 신하들을 보내어 맞이하여 왕후로 삼았다 한다. 왕후는 태자 거등공(居登公)을 낳았으며 188년에 죽으니 나이 157세였다고 한다. 구지봉(龜旨峰) 동북쪽 언덕에 장사지냈다고 하였는데 현재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龜山洞)의 고분이 허황후의 능이라고 전하여 오고 있다. 그녀가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는 것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윤색된 것으로 보이며, 본래의 시조설화에는 왕후가 먼 바다를 건너온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동백나무 (1반 마은지)



동백나무의 키는 약 15m, 직경이 약 50cm로 자라며, 잎 표면이 짙은 녹색이며 광택이 나고 뒷면은 황록색이며 타원형으로 어긋나고 길이는 5~12cm, 폭이 3~7cm이고 물결 모양의 잔톱니가 있다. 꽃은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으며 적색으로 앞에 붙어 있거나 줄기의 끝이나 꼭대기에 핀다. 꽃잎은 5~7개가 밑에서 합쳐지며 길이 3~5cm로 수술과도 합쳐지고 수술은 노란색으로 90~100개가 있다.

퀴즈 O X 퀴즈 (2반 김지수)

1. 최치원은 노비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장차 훌륭한 업적을 거두어 진골귀족이되었다 (o , x)
2. 최치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개인문집의 <계원필경>이었다(o , x)

퀴즈 누리마루의 건축양식의 특징을 3가지 말해보자! (6반 최유정 남가영 김재빈 유성현 김진아)

미션 동백섬에 인어공주상과 등대전망대, 석가전망대 등 가본 소감과 제일 인상 깊었던 장소를 그려봅시다. (4반 신채원)

미션 이번 장소에서도 즐겁게 미션 수행 할 수 있겠지? 창의력을 기대해 ♡ ‘동백섬은 ~이다’ 와 그 이유는? (6반 최유정 남가영 김재빈 유성현 김진아)

동백섬은 _____ 이다.
이유는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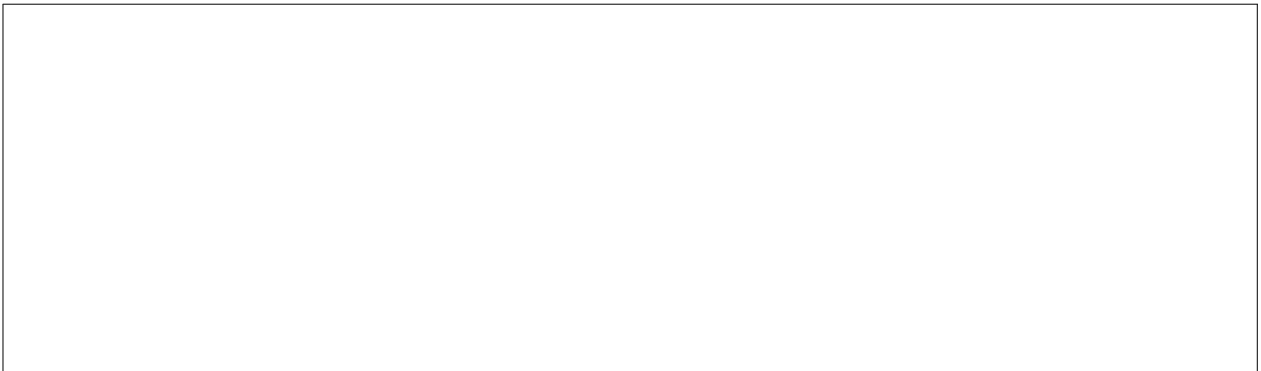


해운대 해수욕장 (2반 이강현)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인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의 길이 1.5km, 너비 30~50m, 평균수심 1m, 면적 58,400㎡의 규모로 넓은 백사장과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고 있으며 얕은 수심과 잔잔한 물결로 해수욕장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 해수욕장의 옆에는 다리미 모양의 동백섬이 이어져 있다.



미션 모래사장에 뛰어드는 장면을 순간 캡처 하기 (1반 강문준)



센텀시티와 광안대교 (3반 김민지)



센텀 시티(Centum City)란 라틴어로 100을 뜻하는 센텀과 시티의 합성어로 100% 완벽한 첨단 도시를 의미한다. 첨단 기술과 자연이 결합된 미래 복합형 도시, 즉 정보·업무·관광·상업·주거·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이다.

센텀 시티가 조성된 지역은 예전에 수영 비행장[또는 부산 비행장]이 있던 자리로, 해운대구 재송동에서 우동까지의 수영 강변 구역이다. 1976년 8월 김해 국제 공항이 조성되어 비행

장이 옮겨 가고 난 후 군용 항공 기지로 사용되다가 1996년 4월 1일 부산광역시로 부지가 이전되었다. 센텀 시티 조성 지역은 비행장으로 사용이 중단된 이후에는 개발에서 제외되어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쓰이며 도시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오늘 날에는 부산 기대 지역으로 밤에는 건물들이 빛나고 앞에는 부산바다가 있어 야경이 아름답다고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부산여행에서 꼭 사진 찍는 곳이기도 하다. 그 모습이 홍콩의 야경과 비슷하다고 하여 부산의 홍콩이라고도 한다.

광안대교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과 해운대구 우동의 센텀시티를 잇는 총길이 7,420m, 너비 18~25m, 2층 복층 구조의 왕복 8차로의 다리로, 1994년 8월에 착공해 2003년 1월 6일에 개통하였다. 광안해수욕장의 야경과 함께 부산광역시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초량 이바구길 (1반 권소연)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테마 거리이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부산항 개항을 시작으로 해방 후 피난민의 생활터였던 1950~60년대, 산업 부흥기였던 1970~80년대 부산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야기의 보고다. 길이 1.5km의 이바구길은 부산역 건너편에 자리한 부산 최초 물류창고인 남선창고 터에서 출발해 옛 백제병원 건물, 초량초등학교 담장에 설치된 이바구 갤러리, 우물터, 168계단, 김민부 전망대, 당산, 망양로까지 이어져 있다. 이바구길의 끝 자락에 위치한 지상 2층 규모의 '이바구 공작소'는 지역의 역사관 격으로 마을 자료관, 전망 데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션 이바구길의 지도를 찾아 빈칸을 채워보자 (1반 남현준 연경모 장대한 유호재)



미션 초량 이바구길 에서 마음에 드는 장소를 을 선택한 후 그림을 그리고 왜 그런지 이유를 써 봅시다. (4반 배서현)

장소 :	

미션 이바구길의 모습이 들어나게 '이바구' 삼행시를 지어보자. (2반 권소연)

이
바
구



담장 갤러리 (3반 양경식 박현수 박태균 최준영)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47번길. 초량 이바구길의 한쪽에는 초량동의 옛 모습을 돌아 볼 수 있는 갤러리가 있음. 이바구가 많은 이 담장에는 산복도로의 삶과 애환이 담겨있고, 한대는 초량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도 있음. 초량 이바구길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테마 거리. 길이 1.5km의 이바구길은 부산역 건너편에 자리한 부산 최초 물류창고인 남선창고 터에서 출발해 옛 백제병원 건물, 초량초등학교 담장에 설치된 이바구 갤러리, 우물터, 168계단, 김민부 전망대, 당산, 망양로 까지 이어짐. 이바구길의 끝자락에 위치한 지상 2층 규모의 '이바구공작소'는 지역의 역사관 격으로 마을 자료관, 전망데크 등을 운영.

미션 다음 중 초량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1반 남현준 연경모 장대한 유호재)

1. 이경규 2. 나훈아 3. 박칼린 4. 박명수

미션 담장갤러리 중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보고 그 제목과 느낀점을 써보자!! (4반 김재윤)

제목:

느낀점: _____

168계단 (3반 김민지)

산복도로에서 부산항까지 가장 빨리 내려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산복도로의 대표적인 특징중 하나인 세로로 난 지상6층 높이의 아찔한 계단이다. 계단의 수가 168개이며 계단 아래에 원래 3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식수로 쓰던 1개의 우물만 남아있으며 물이 부족하던 시절 물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물지게, 물항아리 등 남녀노소 누구나 만나는 만남의 장이었으며 소문이 퍼지는 근원지였다. 최근 드라마 '쇼핑왕 루이'에 나오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다 올라가면 김민부 전망대가 있다. 부산항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옆에는 모노레일 승강장이 있어 발가락으로도 걷기 싫은 사람은 타고 올라가면 된다. 심지어 무료이니 그냥 타라.

소소한 즐거움 (3반 김민지)

	168계단을 걸었다면 무려 35kcal가 소모되었다. 어서 간식을 먹어라 나가면 들어와야지		올라가면 서인국이 짠..이 아니라 등신대가 있다. 잘 찍는다면 진짜처럼 보일수도
	계단 걸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올라가다 찍으면 그대로 인생사진◎		색감이 굳 사진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

계단 걸을 때 보는 이야기 (3반 김민지)

산복도로는 원래 산 중턱을 지나는 도로를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사지까지 개발이 이루어지며 가장 위쪽에 자리한 도로를 의미한다. 부산의 산복 도로는 부산의 구도심(↔신도심)과 항구를 열었던 시기부터 시작된 이방인이 모여든 도시 부산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간이다. 평지가 좁은 부산 도심부로 유입된 대규모의 외지인들에 의해 도시 난개발(주거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도시 계획도 하지 않고 주택지가 됨으로써 기형적인 도시가 발생하게 된 것을 이르는 용어)의 역사를 보여 주는 공간이 부산의 산동네이다. 이 산동네를 연결하는 도로가 산복 도로인데,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주도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산 위의 마을까지 연결되는 통로로 산복 도로가 형성되지만, 부산에서는 산복 도로가 금정 산맥을 따라 길게 이어지며 독특한 형태로 발달해 있다. 산동네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산복 도로는 부산의 도시 공간을 산복 도로 위와 아래로 수직적 형태로 경계를 가르고 있다.

모노레일의 역사 (1반 권소연)

모노레일의 구상 그 자체는 현재와 같은 철도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있었으나, 실용화된 것은 1880년 경 아일랜드의 벨리뷰니온 철도에서 건설한 것이 시초이며, 193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본격적인 모노레일은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독일 부퍼탈시의 현수식 모노레일이다. 그 후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각종 발명이나 개량, 시작이 이루어졌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실업가 A.L.베너그렌이 1951년 연구에 착수하여 시작품을 만들고, 1957년 실물 크기의 선로 및 차량을 완성하였다. 이것은 베너그렌의 머리글자를 따서 알베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1950년 말엽에는 프랑스의 사페주사가 사페주식을 발명하였 붙여졌다. 그 후 1958년에는 최초의 강철레일·강철바퀴방식에서 콘크리트빔 고무타이어 방식이 개량되어 최고시속 80km를 기록하였다.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3반 서남경 원인주 윤현정 이영인 조한별)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구, 동구, 서구 등 원도심 지역 산복 도로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사업이다. 2011년 부산시에서 산복도로르네상스 1차년도 사업으로 부산역과 초량동 산복도로 마을을 잇는 골목길에 다양한 역사적 소재와 이야기를 담았다. 산복 도로 지역의 가치를 복원한다면 이 시대 최고의 풍경이 아니라도 부산만이 지니고 있는 유일한 풍경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다. 부산의 서민적 애환이 담겨 있는 서민 생활지이자 일생 생활의 문화가 남아 있는 특성이 압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션 모노레일 타고 난 후 느낌 써보기 (1반 권소연)

퀴즈 OX퀴즈 (3반 서남경)

1. 산복도로는 현재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이다. ()
2. 산복도로는 산의 아래부분에 만든다. ()

퀴즈 색칠하기 (3반 서남경)

산	지	후	초	히	사	자	자
복	름	하	량	토	육	고	오
도	길	부	이	끼	싶	늘	은
로	산	산	바	다	동	물	토
항	무	행	구	강	아	지	요
서	워	요	길	귀	여	워	일
르	네	상	스	프	로	젝	트

르네상스 프로젝트 초량이바구길
산복도로 부산항 지름길

미션 간이전망대에서 남지현, 서인국과 사진 찍기 (5반 김나현 임지은 최석환 김동하)

사진 붙이는 곳

김민부 전망대 (3반 김재원)



‘기다리는 마음’으로 유명한 김민부 시인을 기리고자 부산항이 잘 보이는 168계단 옆에 만들어진 전망대이다. 김민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등단을 한 천재시인으로 우리에게 ‘자갈치 아지매’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피디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전망대에 올라서서 바다를 바라보면 절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김민부 (3반 김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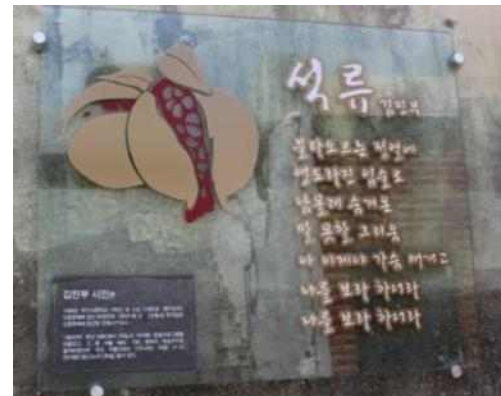
1941년 3월 14일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 이름은 김병석(金炳錫)이었으나 부산중학교에 입학하여 김민부(金敏夫)로 바꿨다. 고등학교 졸업 후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편입하여 1962년 졸업하였다. 이후 부산문화방송에 프로듀서로 입사하여 방송용 글을 쓰기 시작하였고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자갈치 아지매, 1964, 가요 반세기 등을 제안하였고 후에 동아방송, 동양방송 등에서 방송 작가로 활동하였다. 그 시기에 가고 ‘기다리는 마음’의 노랫말을 지었다. 또한 시집은 ‘항아리’, ‘석류’, ‘균열’, ‘나부와 새’를 발간하였고 후에 연말 특집용 방송 원고 3천 장을 써야 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던 김민부는 저녁을 먹던 중 부인과 언쟁을 벌인 뒤 방문 열쇠를 창밖에 던져 놓고는 석유난로를 발로 걷어차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고 이틀 뒤 세상을 떠났다. 김민부의 나이 서른한 살 때였다.

기다리는 마음 (김민부 시, 장일남 곡)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봉덕사에 종 울리면 날 불러주오
저 바다에 바람 불면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임 오지 않고
파도소리 물새소리에 눈물 흘렸네

석류



미션 김민부 전망대에서 본 부산의 풍경을 그려보자. (1반 남현준 연경모 장대한 유호재)



퀴즈 다음 중 김민부 시인의 작품이 아닌 것은? (1반 남현준 연경모 장대한 유호재)

1. 조춘 2. 나는 때때로 3. 기별 4. 어떤 판화 5. 진달래 꽃



이바구 공작소 (2반 김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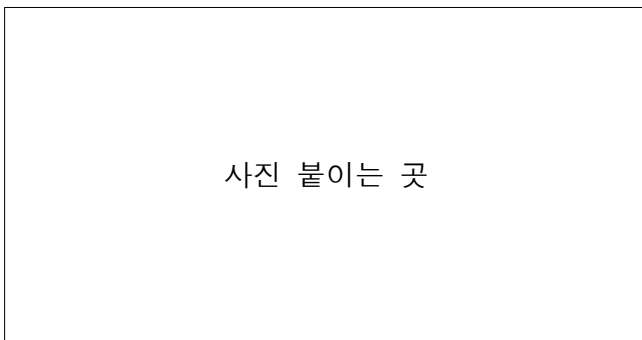


이바구 공작소는 일제시대, 6.25와 피난시절의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지역인 산북도로를 삶의 터전으로 근현대사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소중한 기억자산을 전시해 놓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그려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어. 이바구 공작소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3개를 소개해 줄게. 첫 번째로는 공작소에서 수집된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제공하고, 드라마 소재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료수집과 전시를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해. 마지막으로 주민 스스로 자신의 삶과 이야기가 중요한 자원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삶에 가치를 부여 시켜주는 역할을 해. 주민 중심의 홍보활동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 다른 곳에도 이런 시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부산 피난민들 (2반 김나경)

부산은 6.25와 해방이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피난민들 때문이야. 6.25는 알다시피 예고 없이 터진 전쟁이라 방어할 틈이 없다 보니 피난민들이 부산까지 내려오게 된 거야. 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부산 시민들은 피난민으로 살게 돼. 나중에는 산업화가 되면서 고향을 떠나 일자리를 찾아 떠난 사람들의 마을이 되어버려.

미션 옛날 교복 입고 책상에 앉아 사진 찍기 (5반 김나현 임지은 최석환 김동하)



미션 자신이 생각하는 이바구공작소의 특징이나 장점을 각각 3개씩 적어보자.(4반 신채원)

- 특징 1.
2.
3.

- 장점 1.
2.
3.

퀴즈 O X 퀴즈 (4반 신채원)

1.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은 모두 펜화전으로 가득 차 있다. ()
2. 이바구공작소 2층에서 한국 전통 놀이 체험을 할 수 있다. ()

이바구 충전소 (4반 신채원)



고령자 사회 참여 종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운영된다. 초량지역 이바구 길의 문화 인프라를 활용,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동구청, 한국인력개발원, 동구노인복지관이 공동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 총 5개 사업에 57명의 어르신들이 감칠맛 나는 손맛으로 노익장을 자랑한다. 탐방객을 대상으로 공방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숙소 제공 및 여행 안내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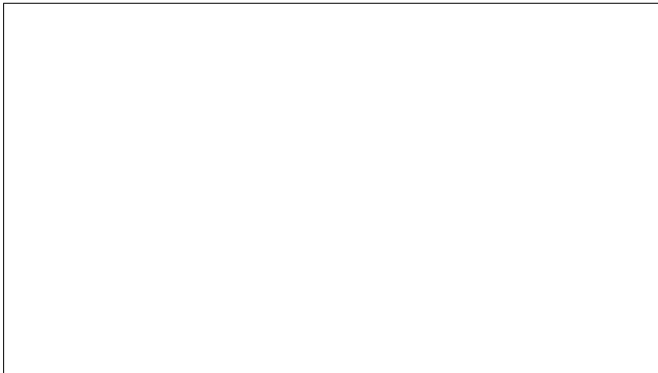
이바구 충전소 특징 (4반 신채원)

삶의 애환이 스며있던 판잣집과 양철집을 형상화하여 조성하였으며, 초량 이바구길의 여행안내소이자 휴식 공간, 체험공간으로써 숙박도 가능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된다. 가족 공예 체험 및 완제품들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이다.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한 2층 건물에서는 북 향이 한눈에 내려다보일 만큼 전망이 탁월하다. 숙박료도 저렴한 편인데 1인에 15,000원이다.

퀴즈 다음 중 이바구 충전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2개)? (4반 신채원)

- ① 막걸리 ② 노산대 ③ 공방체험 프로그램 ④ 온돌방 ⑤ 근정전

미션 이바구 충전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려서 간략하게 그려봅시다. (4반 신채원)







미션 자신이 이바구 충전소를 꾸미게 된다면 어떻게 꾸밀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4반 신채원)



장난감 다락방 (4반 신채원)



마치 타이머신을 타고 어른들의 유년시절로 돌아간 듯한 추억의 장난감 가게. 입장료는 500원. 옛날 병음료, 불량식품, 딱지, 인형, 교과서 등이 이곳에 모여 있다. 가게 안에선 직접 달고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장난감 박스 옆으로 작은 테라스와 전망대가 있다. 장난감 박스에서 커피나 코코아를 주문해서 이곳에서 마시면 근사한 테라스 카페로 변신할 수 있다.

불량 식품		옛날 간식 중에는 비타C캔디, 츄잉짱, 애플맛, 꼬치제리, 미니쥬, 알콩달콩, 모두랑 제리, 빅크레이지빈, 젤리통통, 불고기맛 후랑크, 팡야 버블껌, 오징어 다리, 개껌 모양 사탕, 피자모양 젤리, 콜라맛 사탕, 나는 커리다, 자야, 라면 짱, 라볶이, 새우몬, 양파몬, 오부라이트를, 맥주모양사탕, 아팻치, 맛기차콘, 마시콘 등 이 있다.
장난감		옛날 장난감은 따쇼, 고무줄 총, 미니카, 스프링을 이용한 비행기 총, 수중게임(축구, 농구, 공 넣기, 고리 넣기), 화학로켓과 화학총, 본드풍선, 장난감 부메랑, 끼워 돌리는 팽이, 프로펠러 등이 있다
물건		옛날에는 교과서 외에 참고 서적이 별로 없었으나, 오늘날에는 교과서 외에도 여러 가지 참고 서적이 많이 있다. 옛날에는 학용품의 질이 좋지 않았고 종류가 적었으나, 오늘날에는 학용품의 질이 좋고 종류도 다양하다. 가마솥, 부채, 웅기, 맷돌, 주판 등은 요즘 날에도 사용되고 있다
도시락		모서리가 살짝 둥근 도시락통과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즘 도시락과는 달리 옛날 도시락에는 반찬 넣는 칸 이라 던지 칸막이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흔들어서 섞어서 먹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서민적인 정서가 가득 담겨 있는 옛날 도시락. 요즘에도 옛날 도시락을 판매하는 가게도 있다.

미션 장난감다락방에서 제일 맘에 드는 불량식품을 찾아 그림을 그리고 그 불량 식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써보자. (4반 신채원)

퀴즈 O X 퀴즈 (4반 신채원)

1. 옛날 불량식품 중 90%를 현대까지도 판매하고 있다. ()
2. 옛날물건들은 주변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3. 장난감 다락방에서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할 수 있다. ()

장기려 기념관 (4반 정대현)



2013년 개관한 평생 가난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한 장기려 박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장기려 박사 (4반 정대현)

호: 성산 출생지: 평안북도 용천

경성의학 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32년에 수석으로 졸업함. 1938년 경성의전 외과학 강사로 근무하다가 경성의전 입학 당시 돈이 없어서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940년 기독교 계열의 평양 기흥병원 외과 과장으로 자리를 옮김. 1943년 간상변부에 발생한 간암의 설상절제수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선의 학회지에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외과학 교수 등으로 재직. 사회봉사활동은 1950년 6·25 전쟁으로 남하한 후 1951년 경 전영창과 한상동 목사의 요청으로 부산 영도구 남향동에 위치한 제3교회에서 무료진료기관인 복음병원을 설립. 1976년까지 25년간을 복음병원 원장으로 봉직하면서 1968년에는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들고 가난한 이들에게 의료복지 혜택을 주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975년에는 의료보험조합 직영의 청십자 병원을 개설. 이듬해인 1976년에는 한국청십자사회복지회를 설립.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미션 장기려 박사의 유품 10여종 중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고르고 고른 이유를 써보자!! (4반 김재윤)

유품:

고른이유: _____

퀴즈 OX퀴즈 (4반 김재윤)

1.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장기려 박사로인해 시작되었다. (O , X)
2. 장기려 박사는 한국의 에디슨이라고 부른다. (O , X)
3. 장기려 박사는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동구지역에 설립함. (O , X)



유치환의 우체통

(3반 박태균 박현수 양경식 최준영)



부산 동구 초량동 산복도로에 있는 전망대로 청마 유치환 시인의 예술과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이곳에 우체통을 설치. 강남여고 교장을 2차례 지내고 동구에서 생을 마감한 청마 유치환을 기리며 부산향을 한눈에 전망할 수 있는 명소. 전망대는 1층과 2층, 옥상으로 나뉜다. 1층은 계단식 야외공연장, 사방이 통유리로 설계된 2층은 89.54㎡ 규모로 미술 전시용으로 사용. 개관일은 2013년 05월 15일이고, 입장료는 무료이다. 유치환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의 말이 담긴 깃발의 시인.

미션 인증샷을 찍자. (3반 박태균 박현수 양경식 최준영)

퀴즈 유치환의 작품을 3가지를 쓰시오.

A :

미션 유치환의 우체통이 하는 일 조사

A :

미션 전망대에서 경치를 구경해보고 감상평(별 몇 개?)

A :

차이나 타운 (4반 김진아, 4반 장나영)



차이나타운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야. 현재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으로 들어온 다양한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지역이기도 해! 입구부터 중국스러운 간판과 소품들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맛집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 2007년 7월에는 지역 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되기도 했대!

차이나타운의 역사

차이나타운은 개항기에 중국 영사관이 있던 장소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중국인들이 많이 살게 되었어. 1884년 중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영사관이 만들어졌고, 외국인 거주지가 설치되었어. 그 주위로 중국인들이 상해로부터 가져온 비단과 꽃신, 거울,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가게와 집이 늘어나면서 청관 거리로 불리게 되었다고 해. 1895년 청일 전쟁에서 중국이 패하면서 중국인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며 사라졌으나, 1898년 이후 영사관으로부터 다시 중국인 거주 지역이 되었어! 6·25 전쟁 이후에는 미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미군을 위한 유흥 주점이 늘어나 텍사스 거리로 불리기도 했대. 그리고 1990년대에는 러시아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러시아인이 많이 몰려들자 러시아 인을 위한 유흥 주점과 보따리상이 늘어나며 러시아 거리로 불리기도 했어. 1993년 부산과 상하이가 자매결연을 맺으며 상해 거리로 명칭을 정했다고 해.

미션 차이나타운 움직인 도선을 지도에 표시하고, 돌아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 3 곳을 쓰고 이유를 써봅시다. (4반 김진아, 4반 장나영)



미션 차이나타운을 한 번도 안 가본 외국인 친구에게 차이나타운에 특징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문장을 써봅시다. (4반 김진아, 4반 장나영)



미션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물건이나, 음식을 그려봅시다. (4반 김진아, 4반 장나영)



퀴즈 O X 퀴즈 (4반 김진아, 4반 장나영)

1. 중국인 이민자로서 그들의 국적을 유지한 채 전통과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흔히 화교라고 부른다. ()
2. 중국인들이 정식으로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온 지는 150여 년이 되었다. ()
3. 2004년 제1회 상해 거리 축제를 시작으로 2008년부터 차이타운 특구 축제로 명칭을 바꾸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
4. 부산 차이나타운은 인천 차이나타운보다 먹거리, 볼거리가 많다. ()

퀴즈 다음 중 차이나 타운이 있는 도시가 아닌 곳은? (5반 김태현 방지혁 안도원 안치성 박선영)

- ①인천 ②런던 ③벤쿠버 ④서울 ⑤멜버른

소림사 (5반 이승호)



소림사는 1913년 승려 송영이 창건하였으며, 해방 직후인 1945년 비구니 정금광이 인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비구니는 여자 승려다.) 1948년 순 한국식 불단으로 개조하여 가람을 수호하며 포교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그 후 1995년 승려 정일이 7년간의 불사 끝에 무량수전을 완공하였다.

소림사는 부산 지역의 지도적인 재가 불자를 양성한 대표적인 사찰로 꼽힌다. 소림사는 전통적인 신행 도량이다. 뿐만 아니라 1970~1980년 대불련 등 부산 지역

내에 있는 대중 신행 단체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한 곳이기도 하다.

소림사를 대표하는 것은 60여 년간 지속해 오고 있는 산림 법회이다. 승려인 해운과 정일의 원력으로 대덕 큰 스님들과 함께 하는 법화 산림 법회, 열반 산림 법회, 참회 산림 법회 등의 대법회를 끊임없이 개최하였다. 역대 고승들의 법문과 회주 정일의 대중 기도는 무척 유명하다.



소림사의 전각은 무량수전과 대웅전이 있다. 무량수전에는 본존불인 아미타불상과 좌우에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을 봉안하고 있다. 무량수전 내에는 신중단, 칠성단, 독성단, 산신단 등이 있다. 대웅전은 석가모니불상과 관세음보살상, 대세지보살상을 봉안하고 있으며, 지장보살상, 홍법대사상, 부동명왕상도 함께 봉안하고 있다.

기본적인 사찰 예절 (4반 백채림)

- 도량 내에서는 뛰어다녀서는 안되며 법당 정문 앞을 지날 땐 허리를 살짝 구부려 반 배하고 지나갑니다.
- 도량 내에 들어왔을 때는 맨 먼저 법당 부처님을 참배하고 나서 다른 일을 보도록 합니다.
- 몸가짐을 항상 단정히 하고 음주, 식욕, 흡연, 고성방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 신을 끈다던지, 가래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않으며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 도량 내에서 스님을 뵈거나 법우들끼리 서로 만났을 경우 합장 반배하면서 '성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등으로 인사를 합니다.
- 도량 내의 모든 물건과 기물들은 조심스럽게 소중히 다루어야 하고 복이나, 종, 목탁, 요령 등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 법당을 나올 때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이 반드시 촛불을 끄도록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거나 남아서 참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켜둡니다.
- 불전 앞에서는 세 번 절함이 원칙이고 삼존불이 계시더라도 각각 삼배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기도나 발원은 속으로 조용히 합니다.
- 모든 공양물은 아랫단으로 내려서 공양을 올릴 수 있으나, 아랫단에 먼저 올린 공양물을 윗단으로 옮겨 공양을 올려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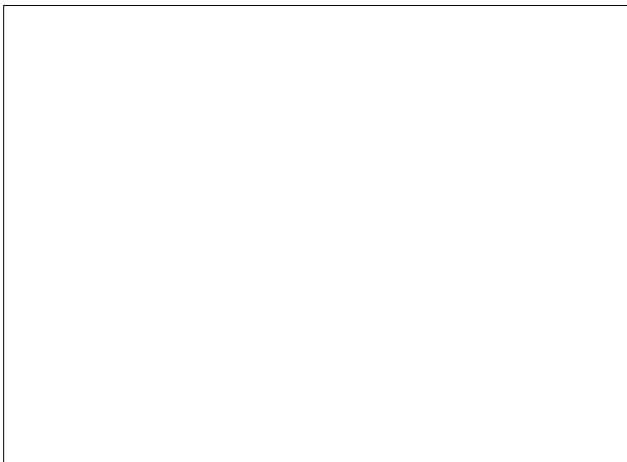
미션 소림사로 삼행시를 지어보자. (4반 백채림)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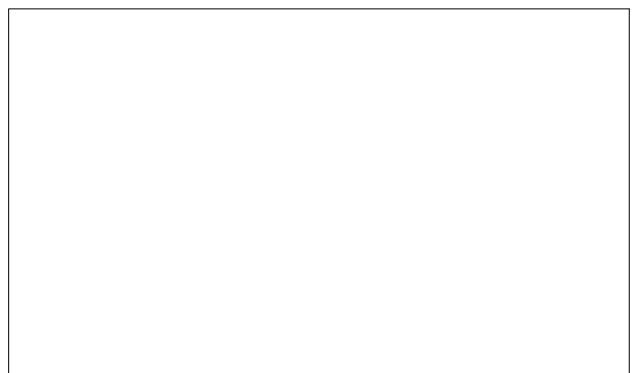
림:

사:

미션 소림사의 지도를 간략하게 그려봅시다. (4반 백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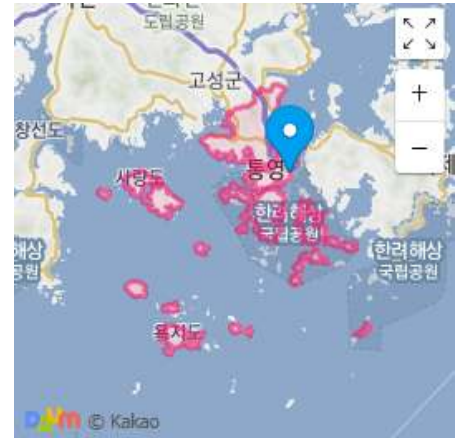
미션 소림사 무량수전 그려보기 (4반 장민국)





통영 (6반 최지호 정수현 김재운 손영진 신요한)

대한민국 경상남도 남부 남해안에 있는 시. 1995년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되어 통영시가 되었다. 고성반도와 한산도·미륵도 등의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임진왜란 때 한산대첩 등 해상전투의 격전지였던 곳이며, 한산도를 중심으로 충무공과 관련된 유적이 많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청정해역으로 특히 굴 양식과 멸치잡이가 활발하다.



(30221 김나경)



통영시는 우리나라 제1의 해상 관광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야. 온화한 기후에 예쁜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있어. 또 곳곳에 이순신 장군의 전승 유적지가 많아. 관광객도 많이 오는 곳 중 하나야. 여름철에는 비진도·연화도·욕지도 등이 해수욕장과 같이 유명해. 3면이 바다로 싸여 있고 41개의 유인도와 110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경상남도의 대표적 도서 지역이야. 그리고 통영항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동쪽 관문으로 우리나라 중에 가장 주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항구로 알려져 있어. 통영은 남해 해상 교통 인근 해역은 어종이 다양

하고 수심이 얕은 해안으로 양식어업의 최적지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표적인 산업도 수산업이 됐어. 멸치가 통영의 특산물이고, 굴 양식과 피조개 양식, 그리고 장어 잡이 통발 어업이 발달했어.

통영은 옛날부터 양반과 상민의 차별이 적었던 곳으로 통영에 납품하는 공방이 발전하여 장인들이 많았어. 통영갯, 통영장롱, 통영소반 등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쳤고, 나전칠기도 통영에서 시작되었다고 해.

(3반 김민지 김다은 이윤주 강은희 김희주)

예술과 음식의 맛에 혼을 빼앗기는 통영. 보물 같은 섬 욕지도와 바다를 품은 장사도 해상공원 등 수려한 자연경관이 가득한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시인 백석이 지나간 자리와 통영이 고향인 소설가 박경리의 발자취가 깃들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통영의 명물이 되었다는 충무김밥이나 대표 간식 꿀빵은 통영 여행에 빠지지 않는 주전부리 목록이다.



위치	경상남도 남해안 중앙부에 있는 시
면적(km²)	238.06
행정구분	1읍 6면 8행정동(17법정동)
꽃	동백꽃
나무	동백나무
새	갈매기

미륵산 케이블카 (4반 김진아, 장나영)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미륵산 케이블카는 한국에서 유일한 자동 순환식 곤돌라야. 길이도 1975m로 국내 일반 관광객용 케이블카 중에서는 가장 길다고 해! 대단하지? 또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환경을 보호하고 탑승객의 승차감을 높인다고 해. 하루 평균 4천여 명이 이용하고 주말 탑승객은 무려 1만 명이 넘는대! 게다가 하루 최다 탑승 기록은 1만 1천40명으로 관광 기네스에 오르기도 했다! 우리가 이런 대단한 케이블카를 타게 된다니 너무 놀라워! 시원하고 아름다운 한려수도의 경치를 감상하다 보면 이동 시간이 10분밖에 안되는걸 아쉽다고 생각할거야.

(2반 류현진 조웅비 주이찬 김상연)

통영의 시가지와 한려수도를 한눈에 조망하려면 해발 461m의 미륵산 8부 능선까지 운행하는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타는 게 최고의 선택이다. 미륵산은 산림청 지정 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하나로 미륵이라는 명칭에는 미륵불이 강림할 곳이라는 전설이 담겨 있다. 케이블카가 없을 땐 미륵산 정상으로 가려면 울창한 편백 숲의 절집 미래사에서 가파른 산길을 올라야 했다. 지금은 케이블카를 편도만 끊어 미륵산 정상을 둘러보고, 내려가는 길은 등산로를 선택하는 여행자도 많다.

한국 최초 자동 순환식 곤돌라 (4반 김진아, 장나영)

미륵산 케이블카는 한국에서 유일한 자동 순환식 곤돌라야! 정말 놀랍지? 자동 순환식 곤돌라는 자동 순환식 삭도밧줄에 자동식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운반 기구를 매달아 같은 방향으로 순환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을 말해. 스위스의 최신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었고 케이블카의 장비는 스위스의 가라반타사를 사용했다고 해.

케이블카의 개념

케이블카는 로프를 이용해 공중 또는 지면으로 승객이나 목적물을 이동시키는 운송수단이다. 주로 산악지형에서 소규모의 물자운송에 이용되다가 근래 들어서 철제로프의 발전에 힘입어 광물, 레저용 공항 등에서 이용하는 빠르고 안전한 운송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케이블카의 운영기술

케이블카는 구동방식에 따라 로프구동방식과 하중지지방식으로 구분된다. 로프구동방식은 순환식과 왕복식으로 구분되며, 순환식은 또 고정순환식과 분리순환식으로 구분한다.

케이블카는 운반구에 따라 캐빈형과 의자형으로 나뉘고 케이블카가 지면에 닿는지에 따라 지상형과 공중형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케이블카를 의미하는 공중케이블카는 운반기를 이용해 정류장을 순환하며 승객을 운송하는 케이블카를 말하는데, 일반적인 고정 순환식과 분리 순환식이 여기에 속한다. 관광용, 스키장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케이블카의 종류 (2반 김하연)

	왕복식 삭도 : 밧줄에 운반 기구를 매달아 정류장을 왕복시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 (일반적인 케이블카 : 서울남산, 설악산 등)
	자동순환식 삭도 : 밧줄에 자동식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운반 기구를 매달아 동일한 방향으로 순환시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 (통영 미륵산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고정순환식 삭도 : 밧줄에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운반 기구를 매달아 동일한 방향으로 순환시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 (스키장 리프트)
	화물삭도 : 화물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삭도(사찰 생필품 운반용 등)

미륵산 한산대첩 전망대 (6반 김재운)



한산도 해전 배경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케이블카를 타고 도착한 후 미륵사까지 걸어올라 가야 한다. 올라가는 길에 당포해전 전망대도 있는데 날씨가 좋으면 여수 들산도도 보인다고 한다. 미륵산 정상에 올라가면 한산대첩 전망대가 있다.

미륵산 신선대 전망대 (6반 김재운)



옛날 신선들이 놀던 자리. 신선대 전망대 한가운데에는 정지용 시인이 8.15 해방 후 통영을 방문, 청마 유치환의 안내문 미륵산에 올라 한산도 앞바다를 바라보고 “ 나는 통영 포구와 한산도 일대 아름다운 풍경을 내 문필로는 표현할 능력이 없다 ” 라며 말했다.

미륵산 자락에는 ? (4반 김진아, 장나영)

관음 암		근래에 들어서 무속인들의 기도처가 되었다가 1955년 무렵 선암이 법당을 짓고 중창하였으며, 1971년 법당을 중수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 암자 주변에는 임경업이 7년 동안 수도한 경업대, 용의 양쪽 눈에 해당하는 용안수인 장군수와 생명수, 속리산의 제1경인 입석대 등의 명소가 있으며, 임경업의 수도와 관련된 장군수와 세심문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도솔 암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인 쌍계사의 말사 용화사의 부속암자로 943년(고려 태조 26) 도솔선사가 창건하였다. 창건 이후 초음과 자엄 등의 고승들이 수도하며 후학을 가르쳐 한때 남방제일선원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중창과 중수의 역사는 전해지지 않으며 효봉선사가 6·25전쟁 때 상좌 구산과 함께 이곳에 머물며 선종의 뿌리를 내렸다. 미륵 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절이다.
미래 사		미래사는 효봉스님의 상좌였던 구산스님이 석두, 효봉 두 큰스님의 안거를 위해 1954년에 세운 암자였다. 종각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십자 팔작 누각이며, 삼층 석탑에는 티베트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3과가 봉안되어 있다. 미래사는 미륵산 남쪽의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이 절은 효봉 큰스님의 상수 제자인 구산수련대선사가 6·25 전란 직후인 1954년도에 창건하였으며 주로 효봉 큰스님의 문도들이 주지를 하면서 차츰 키워온 선도량이다. 이 절 주지를 역임한 스님으로는 구산 큰스님, 미산 큰스님, 보성 큰스님, 범흥스님, 종육스님과 현재의 여진 스님 등이다.

퀴즈 걸어가 는 것보다 케이블카 타는 것은 얼마나 빠를까? (2반 류현진 조웅비 주이찬 김상연)


퀴즈 O X 퀴즈 (30126 김혜림)

1. 케이블카는 도르레의 원리와 빗변의 원리를 사용했다. ()
2. 케이블카의 법적인 용어는 '삭도'이다. ()
3. 케이블카의 종류는 자동순환식 삭도만 있다. ()
4. 케이블카란 엄밀히 말해 등반철도를 의미한다. ()



퀴즈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는 어떤 종류일까요? (2반 김하연)

① 왕복식 삭도 ② 자동순환식 삭도 ③ 고정순환식 삭도 ④ 화물 삭도

 힌트(밧줄에 자동식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운반 기구를 매달아 동일한 방향으로 순환시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

퀴즈 미륵산 케이블카는 몇 인승인가요? (2반 김하연)

퀴즈 이 케이블카의 정식 명칭은? (4반 김재윤)

퀴즈 O, X 퀴즈 (4반 김재윤)

1. 미륵산 케이블카는 한국에서 유일한 자동 순환식 곤돌라이다 ()
2. 케이블카 이동시간은 3분이다 ()
3. 미륵산 케이블카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져서 환경을 보호하고, 탑승객의 승차감을 높인다 ()

미션 케이블카를 탄 소감을 써보자. (30126 김혜림)

미션 케이블카에 타고 밖의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보자

서피랑 (6반 최유정, 남가영, 유성현, 김진아, 김재빈)

피랑은 벼랑을 의미하는데 그럼 서피랑을 풀면 서쪽벼랑이 되겠지? 비슷한 곳으로는 우리가 조금 있다 들릴 동피랑이 있어. 실제로 동피랑의 반대편에 위치해! 서피랑은 벽화나 조형물로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생사진’을 남기기 위해 오는 곳이지! 서피랑은 통영성의 서포루가 있던 곳이라고 해서 지명이 유래하였다고도 전해져. 서피랑의 꼭대기에는 통영성을 방비하던 산성중군이 순찰과 경비를 하던 초소로 때로는 장수가 이곳에서 군사들을 지휘한 서장대가 있어. 원래 이름은 서포루이지 만성의 서쪽 서피랑 꼭대기에 있어 서장대라고도 하였 다해. 이제 우리도 아기자기한 벽화와 조형물이 있는 서피랑으로 인생사진 찍으러 가볼까?



서포루 (4반 김지성)

서포루는 숙종 때 외구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통영성내 서쪽에 세운 군영초소로 2008년에 복원되었다. 이곳은 서피랑의 계단을 오르면 볼 수 있는 곳이다.

서피랑 99계단 (4반 정대현)

경상남도 통영시의 명정동에 있는 벼랑. 통영성의 중심인 세병관의 서쪽에 있는 고지대 벼랑 이라고 하여 서벼랑·서피랑이며, 서산으로도 불렸다. 독신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곳인 독소로 가는 계단이 바로 이 99계단이다. 이 계단은 윤이상의 음악과 박경리의 문학을 상징하는 책과 나비로 채색하였고, 계단 상부 벽면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러포즈 할 수 있는 장미 꽃다발 벽화로 장식하였다.



윤이상 (4반 정대현)

출생지는 경상남도 산청군. 출신지는 경상남도 통영. 14세부터 독학으로 작곡을 시작, 일본 오사카 음악학교에 입학해 정식으로 작곡, 음악이론, 첼로 등을 배우고 잠시 귀국. 1939년에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 이케노우치 토모지로로부터 작곡을 공부. 1943년 항일지하활동에 참가한 이유로 감금을 당하기도 했으며, 해방 후 1952년까지 통영과 부산에서 음악교사로 재직. 1949년 <고풍의상>·<달무리>·<추천> 등이 수록된 가곡집 《달무리》를 출판하였으며, 1953년에 서울로 이주하여 경희대·숙명여대·덕성여대 등에서 후진을 양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활동을 시작. 1965년에 오라토리오 <오, 연꽃 속의 진주여>와 1966년에 독일의 도나우싱겐 현대음악제에서 대편성 관현악곡 <예약>을 발표해 국제적인 작곡가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1965년에 <현악4중주 1번>과 <피아노 3중주>로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 유럽의 평론가들에 의해 ‘20세기의 중요 작곡가 56인’, ‘유럽에 현존하는 5대 작곡가’로 선정, 1995년에는 독일 자아브뤼겐 방송이 선정한 ‘20세기 100년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작곡가 30인’의 한 사람으로 선정. 작품으로는 <유동의 꿈>·<나비의 미망인>·<요정의 사랑>·<심청> 등 네 편의 오페라를 비롯하여, <바라>·<무악>·<예약>·<광주여 영원히> 등 20여 편의 관현악곡, 오보에와 첼로를 위한 <동서의 단편> 등 40여 편의 실내악곡,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등의 교성곡, 동요에서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150여편을 남김.

박경리 소설가 (2반 조성지)



그녀는 .음력 1926년 10월 28일 옛 명칭인 통영군 통영읍 명정리에서 태어났어. 그가 태어난 집이 서피랑 가까이 있지. 서피랑과 서피랑 마을에 박경리 흔적이 남아 있는 까닭이야. 박경리는 슬프고 괴로웠기에 글을 썼대. 그의 문학을 이루는 공간 중 하나가 이곳 통영이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어머니를 보며 가슴에 응어리졌을 어린 박경리가 유년 시절을 보낸 장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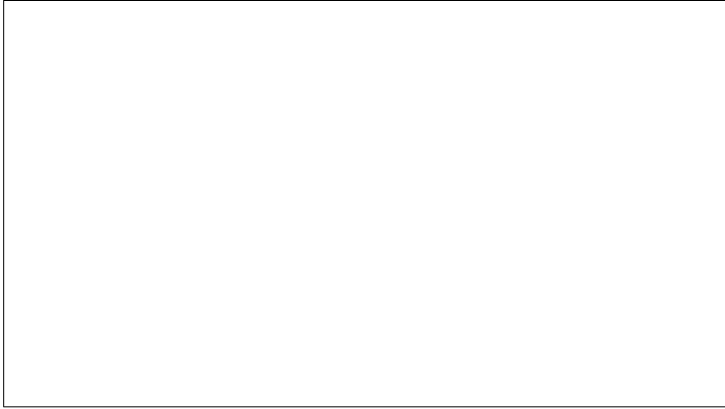
퀴즈 이중 틀린 말을 한 사람을 고르시오. (306 최유정,남가영,유성현,김진아,김재빈)

1. 백현 : 서피랑은 벽화와 조형물로 유명해! ‘ㅅ’
2. 민석 : 서장대와 서포루는 같은 의미야! ○A○
3. 종인 : 서피랑은 서쪽 벼랑이라는 뜻이야! 맞지? ㅂ=ㅂ
4. 태민 : 아니야 종인아! 서피랑은 서쪽 평지라는 뜻이야! ○ㅅ○
5. 찬열 : 서피랑의 반대편에는 동피랑이 위치해 있어 ○표○

미션 서피랑의 계단 77번째 계단의 글을 찾아 쓰시오. (30402 김지성)



미션 서피랑의 벽화 중 인상 깊은 것을 찍고, 그려보자 (3반 양경식 박태균 박현수 최준영)



미션 서피랑 공원에 있는 엉덩이 의자에 앉아 사진 찍기. (4반 송하경)



미션 ‘벽화마을’을 보며 느낀 점을 써 봅시다. (3반 서남경 원인주 윤현정 이영인 조한별)

미션 서피랑이 어떤 곳인지 잘 드러나게 삼행시를 지어보자. (3반 서남경 원인주 윤현정 이영인 조한별)

서:

피:

랑:



동피랑 (6반 최유정, 남가영, 유성현, 김진아, 김재빈)

동피랑은 통영중앙시장 근처의 언덕에 위치해. 서피랑과 마찬가지로 피랑이 벼랑을 뜻해서 동쪽 벼랑이라는 뜻이야. 이곳은 조선시대에 이순신장군이 설치한 통제영의 동포루가 있던 자리로, 통영시는 낙후된 마을을 철거하여 동포루를 복원하고 주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어. 그러자 2007년 10월 ‘푸른통영21’이라는 시민단체가 공공미술의 기치를 들고 ‘동피랑 색칠하기-전국벽화공모전’을 열었고, 전국 미술대학 재학생과 개인 등 18개 팀이 낡은 담벼락에 벽화를 그렸지. 그 뒤 동피랑은 사진 찍기 좋은 벽화마을로 유명해졌고 철거되지 않았어. 동피랑은 일제강점기 시절, 통영항과 중앙시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외지 하층민들이 기거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해. 현재 5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어. 동피랑은 구불구불한 옛날 골목을 온전하게 간직한 곳이지! 여러 벽화와 동피랑의 역사를 생각하며 벽화마을을 즐겨보자!



동피랑 마을의 유래 (1반 이하영)

조선시대에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설치한 통제영의 동포루가 있던 자리로, 통영시는 낙후된 마을을 철거하여 동포루를 복원하고 주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자 2007년 10월 ‘푸른통영21’이라는 시민단체가 공공미술의 기치를 들고 ‘동피랑 색칠하기-전국벽화공모전’을 열었고, 전국 미술대학 재학생과 개인 등 18개 팀이 낡은 담벼락에 벽화를 그렸다.

벽화사업으로 인한 장점 (1반 이하영)

벽화로 꾸며진 동피랑마을에 대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마을을 보존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자 통영시는 마침내 동포루 복원에 필요한 마을 꼭대기의 집 3채만을 헐고 마을 철거방침을 철회하였다. 철거 대상이었던 동네는 벽화로 인하여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통영의 새로운 명소로 변모하였다.

벽화사업으로 인한 단점 (1반 이하영)

사람들이 몰려들자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리거나 밤에 고성방가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했고 기본적인 사생활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일례로 관광객들에게 고통 받던 이화 벽화마을의 주민들이 벽화를 훼손한 사건이 있다.

그러니 이곳이 누군가의 삶의 터전인 것을 잊지 말고 조용하고 매너있게 관람하도록 하자.



[주민에 의해 훼손된 이화마을의 벽화]

관련서적 : 춤추는 마을 만들기 (윤미숙, 남해의 봄날) (3반 김다은)



-줄거리 : 연간 방문객 100만 명, 2014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동피랑 벽화마을. 재개발 위기에 처한 마을을 전국 최고의 관광 명소, 마을 살리기의 현장으로 바꿔놓은 마을 활동가 윤미숙의 10년 여의 생생한 마을 만들기 이야기 동피랑 벽화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 <춤추는 마을 만들기>이 책은 '동피랑 벽화마을', '에코아일랜드 연대도', '강구안 푸른 골목 만들기' 등 마을 만들기의 사례를 생생한 사람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과 마을 활동가, 참여 작가, 아티스트, 행정가 등 다양한 사람들 지지고 붓고, 울고 웃으며 함께하는 과정을 질펀한 사투리와 생생한 에피소드로 전합니다.

다른 지역의 벽화 마을 (3반 김다은)

- 서울 혜화동 이화 벽화마을
- 여수 고소동 벽화마을
- 천안 미나릿길 벽화마을
- 부산 감천동 벽화마을
- 청주 벽화마을 등



동피랑 벽화마을에서 지켜야 할 사항 (에티켓!) (5반 안유나)

- ① 다른 관광객들에게 피해 가지 않게 시끄럽게 떠들지 않기
- ② 뛰어다니면서 다른 관광객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 ③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쓰레기는 쓰레기통에)
- ④ 벽화 훼손하지 않기
- ⑤ 사진 찍을 때는 최대한 빠르고 예쁘게 찍기

재개발이란? (4반 윤서영)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모여 있어서 생활하기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공시설을 정비하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것으로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이다.

미션 이 중 지워진 부분을 모두 채워 넣어라! (6반 최유정, 남가영, 유성현, 김진아, 김재빈)

1. 세훈: 서피랑은 ()이란 뜻이야
2. 이쌍: 동피랑은 일제강점기 시절, ()에서 인부로 일하던
외지 하층민들이 기거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해.
3. 경수: 이곳은 조선시대에()이 설치한 통제영의 동포루가 있던 자리야

미션 벽화 공모전을 열어 철거방침을 철회한 ‘푸른 통영21’이라는 시민단체에게 편지를 써봅시다. (1반 김현진)

미션 가장 마음에 들었던 벽화와 그 이유 (4반 윤서영)

퀴즈 O X 퀴즈 (4반 윤서영)

1. 동피랑 마을은 원래 철거가 될 계획이었다. ()
2. 동피랑 색칠하기-전국벽화공모전을 정부가 열어 벽화가 칠해졌다. ()
3. 동피랑 마을에서는 주민들을 신경 쓰지 않고 돌아다녀도 된다. ()
4. 재개발은 시나 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남망산 통영 조각공원 (1반 남현준,연경모,장대한,유호재)

바다의 빛을 곱게 담고 있는 아름다운 통영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세계 10개국 유명조각가 15명의 작품으로 1997년에 조성된 남망산 조각공원은 5,000여 평의 부지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개성 있는 작품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공원 중간 소나무 한 그루 뒤로 통영의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지는 풍경에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된다. 남망산조각공원에 작품을 만드신 심문섭 조각가님은 1943년 통영에 태어나셨고 중앙대 명예교수를 겸임하시며 2007년 프랑스 슈발리에 훈장을 받으셨고 2009년 제8회 문신미술상을 수상하였다.

15개 中 12개

	4개의 움직이는 풍경 / 이토 다카미치(일본)		통과 가능한 입방체 / 헤수스 라파엘 소토 (베네주엘라)
	출산 / 앤터리 곰리 (영국)		은유-출항지/심문섭
	최고의 순간을 위해 멈춰진 기계 / 에릭 디트망 (스웨덴)		망산 / 다니 카라반 (이스라엘)
	잃어버린 조화, 몰두 / 질 두야르(프랑스)		뒤집힌 무덤 / 황용핑 (중국)
	분재 / 장 피에르 레이노(프랑스)		감시초소/토니 아워슬러 (미국)
	반중력의 곡선 / 미놀리스 마리다키스(그리스)		플라워 97 / 도홍록



(2반 김진주)



남망산 공원은 ‘충무공원’이라고도 불리며, 벚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진 높이 80m의 남망산을 중심으로 전개된 공원이다. 남동쪽으로 거북등대와 한산도, 해갑도, 죽도 등의 한려수도의 절경을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산꼭대기에는 1953년 6월에 세워진 이충무공의 동상이 서 있다. 공원 기슭에는 조선시대에 1년에 2번 한산무과의 과거를 보았다는 열무정의 활터와 시민문화예술회관이 있다. 남망산 꼭대기에 올라 공원

안을 한차례 둘러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바다를 바라보고 우뚝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눈에 띈다. 지금은 조각공원이 조성되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불러 오고 있다.

‘남망산’의 유래

통영항과 동호만을 가르며 길게 바다로 내민 작은 산으로 이루어진 도심지 안에 있는 시민공원이다. 예로부터 항북목으로 연결되어 있어 마치 강구에 떠 있는 섬처럼 보인다. 송림이 울창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 데다가 이곳에서 바라다보는 해안풍경과 야경은 아름답기 그지 없다. 지리적으로 통영의 남쪽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산이라 하여 남산을 뜻하는 남망으로 일컬었으며 후에 다시 ‘산’자가 첨가되어 남망산으로 불린다.

조각 (1반 김지우)

조각은 라틴어 '스컬페레(sculpere)'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정, 톱, 망치, 끌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단단한 재료를 깎거나 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재료에는 나무, 금속, 돌, 찰흙, 테라코타 등이 있다.

조각의 종류 (1반 김지우)

환조	대상을 완전히 삼차원성으로 구성하여, 그 주위를 돌아가며 만져볼 수 있도록 한 입체표현의 조각.
부조	평면상에 형상을 입체적으로 조각하는 조형기법이며 그리스시대부터 제작되었다. 평면 위에 표현된다는 점에서는 회화에 가깝지만, 입체적인 감각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는 조각의 일종이다. 형상이 돌출된 정도에 따라 고부조, 저부조, 반부조로 구분된다.
오브제	추상적인 물체의 모양으로 표현된 여러 가지 미술작품이다. 돌·나무조각·싯조각 등 모든 소재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물체가 갖는 일상적인 대표 작가로는 마르셀 뒤샹, 만 레이 등이 있다.
아상블라주	‘수집하는 것, 집합, 조합’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미술에서는 폐품이나 일용품 등을 비롯하여 여러 물체를 한데 모아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기법 및 그 작품을 의미한다.

미션 남망산 삼행시 (1반 남현준,연경모,장대한,유호재)

남
망
산

미션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을 그리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적기 (1반 남현준,연경모,장대한,유호재)

작품명 :	까닭 :

미션 밑에 있는 조각 찾아 포즈 따라하여 사진찍기 (305 김나현,임지은)



사진 붙이는 곳

퀴즈 O X 퀴즈 (30224 김진주)

1. 남망산 공원은 '충무공원'이라고도 불린다. ()
2. 산꼭대기에는 1993년 6월에 세워진 이충무공의 동상이 서 있다. ()
3. 동백나무와 전나무가 우거진 높이 80m의 남망산을 중심으로 전개된 공원이다. ()
4. 공원 기슭에는 열무정의 활터와 시민문화예술회관이 있다. ()



강구안 (1반 최승일)



강구안은 육지로 바다가 들어온 항구로, 강구안 바다는 다른 항구보다 상쾌하고 활기차다. 푸른 바닷물이 넘실대며 바다가 통째로 흔들리는 느낌이다. 그 위에 고깃배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줄을 지어 정박해 있다. 또 항구 앞에는 유명한 충무김밥을 파는 식당이 줄을 지었다. 풀무와 화덕이 있는 공작소에서는 옛날식으로 쇠를 다루어 각종 연장을 만들어 내며, 중앙시장은 수산물도 물론 공산품까지 없는 게 없다. 이 곳에 사는 주민들이나 시장 사람들이나 이곳을 찾는 여행자들 모두가 강구안의 상쾌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고 또 향유한다. 밤에 가장 아름다운 항구가 여수항이라면 낮에 가장 아름다운 항구는 통영의 강구안이다.

강구안문화마당 (6반 고명우)

통영 이야기길- 1코스 예술의 향기길

이곳 문화마당이 출발지이며 남망산 국제조각공원-시인김춘수생가-통새미-동피랑 벽화마을-화가 김용주 생가-외교관 김용식/소설가 김용익 생가- 시인 유차환생가터-등거처34번 중앙시장에서마치는 10KM거리다.



(4반 박찬영)

통영의 문화마당에는 강구안을 중심으로 많은 볼거리가 있다. 동피랑, 서피랑, 세병관, 중앙시장, 남망산 조각공원, 병선마당, 서호시장 까지 모두 천천히 걸어서 볼 수 있는 곳이다. 문화마당의 강구안에는 거북선을 관람할수 있고 도로 주변으로 충무김밥, 통영꿀빵, 중앙시장엔 생선회 등 먹거리도 많다.



강구안거북선 (3반 박태균 박현수 양경식 최준영)

1990년 이충무공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서울시가 해군에 의뢰, 제작비 22억을 들여 실제 크기로 복원한 거북선, 분단 이후 굳게 닫혀있던 한강하류의 빚장을 52년만에 풀고, 2005년 11월 16일 한강 시민공원에 정박해 있던 거북선을 이순신장군의 한산대첩 전승지인 통영시로 옮겨 전시하게 됨. 선체길이 25m, 속력 약 7노트, 높이 6m, 재질은 나무이지만 바닥은 FRP사용. 돛대 길이는 11.5m이다.

point!

거북선을 표를 끊고 들어갈 수 있음. 들어가면 노 젓는 곳, 요리하는 곳 등을 볼 수 있고, 옷을 입어 볼 수 있음. 그리고, 활쏘기 연습도 가능함.





			
황자총통	천자총통	현자총통	지자총통

우리나라의 장군 이순신 (5반 이승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우수사원군의 요청을 받아 경상도 해역으로 출정해 왜군과의 해전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두었다. 6월 16일(음력 5월 7일) 옥포와 합포에서 왜선 30여척을 격파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고(옥포해전), 다음날에도 적진포에서 10여척의 왜선을 격파하였다(적진포해전). 이 전투들에서의 승리로 조선 수군은 왜군과의 해전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공으로 이순신은 종2품 가선대부로 승진했다. 7월 8일(음력 5월 29일)에는 경상우수사 원군과 합류해 사천에서 서해로 북상하려던 왜선 13척을 모두 격침시켰다(사천해전). 이 전투에서는 거북선이 처음으로 실전에 배치되었다. 7월 10일(음력 6월 2일)에는 당포에서 왜선 21척을 불태웠으며(당포해전), 7월 13일(음력 6월 5일)에는 왜군이 도주해 진을 치고 있는 당항포를 공격해서 왜선 26척을 격침시켰다(제1차 당항포해전). 이러한 잇따른 승리로 이순신은 정2품 자헌대부가 되었다.

(6반 최유정, 남가영, 유성현, 김진아, 김재빈)

<무과급제와 함경도 근무>

1572년(선조 5) 훈련원(조선 시대 군사의 시를 쓰는 능력을 기르고 무예의 훈련 및 병법에 대하여 쓴 책을 읽는 것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별과(조선시대 과거에서 본과 이외에 따로 설치한 과.)에 응시했으나 말에서 떨어져 왼쪽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탈락하셨지. 그래서 30세가 넘는 1576년(선조 9)에야 식년시 무과에 병과로 급제해 관직에 나서셨어.

<임진왜란과 해전>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우수사 원군의 요청을 받아 경상도 해역으로 출정해 왜군과의 해전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두었어. 6월 16일 옥포해전, 6월 17일 적진포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어 종2품이 되셨고 7월 8일 원군과 함께한 사천해전에서는 처음으로 거북선을 사용하셨지. 7월 10일에는 당포해전, 7월 13일 제1차 당항포해전으로 정2품이 되셨어.



<왜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다>

이순신장군님은 전라우수사 이억기, 경상우수사 원균과 함께 8월 14일 왜군을 한 산도로 유인해 50여척의 왜선을 격파·나포한 한산도 대첩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10월 5일에는 부산 포에서 왜군의 병선 100여척을 파괴했어.

<삼도수군통제사 임명>

이순신은 1593년 8월 한산도로 본영을 옮겼으며, 9월에는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 되었어.

<원균과 갈등 그리고 파직되어 백의종군>

이순신장군님과 원균의 갈등이 문제가 되어 조정은 원균을 충청 절도사로 옮겼어. 하지만 조정 대신들은 대체로 원균의 편에 서서 여러 차례 장군님을 탄핵하였지. 1597년 4월 이순신은 한 달 가까이 투옥된 상태에서 혹독한 문초를 받았고, 5월 16일야 풀려나 권율의 진영에서 백의종군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명량해전에서 대승>

이순신의 뒤를 이어 삼도수군통제사가 된 원균이 8월에 칠천량해전에서 왜군에 대패하여 전사하면서 이순신은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되었어. 10월 25일진도 울돌목에서 13척의 배로 130여척의 왜군에 맞서 대승을 거둔 명량해전으로 이 승리로 조선 수군은 제해권을 다시 장악했지!

<노량해전에서 전사>

왜군은 그해 9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철수를 준비했는데, 이순신은 12월 16일 명나라 제독 진린과 연합해 노량에서 500여척의 왜군과 싸워 200여척의 적선을 불태우는 큰 승리를 거두는 노량해전을 이끌었지. 하지만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도주하던 적선을 추격하다가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어. 《조선왕조실록》에는 당시 이순신이 “싸움이 지금 한창 급하니 조심하여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숨이 끊어졌으며, 조카인 이완이 그의 죽음을 숨긴 채 전투를 독려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의 죽음 소식을 들은 조정은 이순신에게 우의정을 추증했지.

난중일기 (6반 최유정,남가영,유성현,김진아,김재빈)

이순신이 직접 전쟁 중에 쓴 책이야.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76호로 지정되었지. 지정 명칭은 이충무공난중일기부서간첩임진장초이야. 부록으로 서간첩 1책, 임진장 초 1책, 합 9책이고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사에 소장되어 있어. 또한, 역사적 사실과 학술연구 자료로서 높은 가치가 인정될 뿐 아니라, 유례를 찾기 힘든 전쟁 중 지휘관이 직접 기록한 사례인 점을 들어 2013년 6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지.

퀴즈 <OX퀴즈> (4반 김재윤)

- 1.강구안은 육지로 바다가 들어온 항구이다. (O , X)
- 2.이 거북선은 옛날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보존됐다. (O , X)



미션 강구안거북선을 보고 따라그려보자 (1반 김태윤 배재경 이태신 황정현 전진혁)



미션 거북선의 후기 (별 몇 개? 이유?) (3반 박태균 박현수 양경식 최준영)

☆☆☆☆☆

A :

미션 강구안 거북선이 나오게 단체로 모뎀원들끼리 사진찍기!(3반 최재혁)

통영 시립 박물관 (4반 정대현)



2013년 2월 5일 준공하였으며 9월 26일 개관한 시립 역사박물관. 통영의 역사와 유물을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행사와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그 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채로운 공연과 영화상영도 진행한다. 박물관은 1층 전시실과 세미나실이 있으며,

1층 전시실은 기획실로 운영되며 2층은 역사실과 민속실이 있다. 상설전시실에는 선사문화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역사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이다.

(5반 김태현 방지혁 안도원 안치성 박선영) 통영시립박물관은 통영의 역사, 유물을 전시하고 통영시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있는 통영시의 시립 박물관이다. 이에따라, 통영시립박물관을 산하기관으로 설립하여 통영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국제문화교류에 이바지하고 있다. 과거에 통영군청이었지만 통영이 인구가 10만명이 넘어 시로 바뀌면서 통영시청의 위치는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2013년 9월 26일에 통영시립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전체 관람소요시간은 약 1시간이며 통영시민은 입장료를 할인해준다.

유물들 (4반 정대현)

	<p>유물명:떡살 연대:20세기 규격:5x7.86x5.41cm</p>		<p>유물명:가마 연대:19세기 규격:110x92x74.4</p>
---	--	--	--

미션 지금까지 본 유물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그려보자!!(유물명과 설명도 조금(?))(4반 김재윤)

	유물명:
	설명:



세병관 (2반 이강현, 백준기)



세병관, 이름의 뜻은 ‘하늘의 은하수를 가져다 피 묻은 병장기를 닦아낸다’이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산도에 있던 삼도수군통제영이 육지인 통영으로 옮겨오면서 지어진 객사 건물이다. 이 세병관이라는 건물에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한다. 기둥의 개수는 총 18개로, 정면 10개, 측면 6개이다.

(3반 김다은)



국보 제305호. 이 건물은 1603년(선조 36) 총무공 이순신의 전공을 기념하기 위해 제6대 통제사 이경준(李慶濬)이 세웠다.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두룡포에 설치했던 삼도수군통제사 영의 중심건물로, 궐패를 모시고 출전하는 군사들이 출사 의식을 거행하던 곳이다.

세병관이란? (3반 김다은)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 '세병마'에서 가져온 것으로 '하늘의 은하수를 가져다 피 묻은 병장기를 닦아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쟁으로 피폐했을 민심을 위로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병관의 현판은 제 137대 통제사인 서유대 통제사가 쓴 글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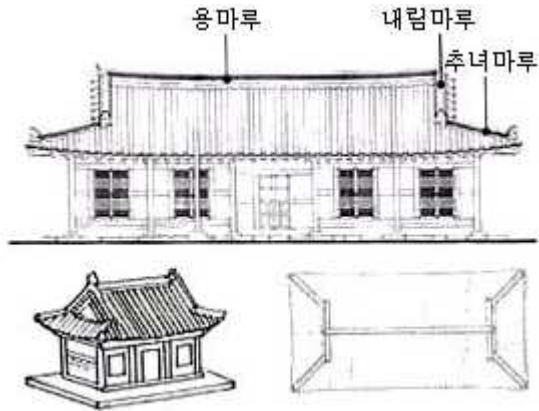
삼도수군통제영 (3반 김다은)

삼도수군통제영은 1604년에 설치되어 1895년 까지 292년간 경상, 전라, 충청의 삼도수군을 지휘하던 본영(현재 해군본부)을 말한다. 임진왜란 당시 초대통제사로 임명되었던 이순신장군의 한산도 진영이 최초의 통제영이었으며, 현 통영에 위치한 삼도수군통제영은 6대 통제사인 이경준 통제사 때 설립된 장소이다. 통제영의 중심건물로는 조선시대 가장 큰 목조건축물 중 하나인 세병관(국보 제 305호)가 있으며, 지방 공방중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통영 12공방 등이 있다.

팔작지붕 (3반 김다은)

팔작지붕은 우진각 지붕 위에 맞배지붕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형태의 지붕이다. 현존하는 권위건물의 지붕형태 중에서 가장 많은 형태의 지붕으로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가 모두 갖추어진 가장 화려하고 장식적인 지붕이다. 가장 아름다운 구성미를 지닌 지붕으로 곡면이 특이하다.

팔작지붕



미션 세병관 현판에 써있는 글씨를 아래에 따라 써보자!! (2반 이강현, 백준기)

미션 예전 전쟁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짧은 위로의 말을 써보자 (2반 이강현, 백준기)

퀴즈 세병관의 기둥의 총 개수는? (2반 이강현, 백준기)

퀴즈 세병관의 이름의 뜻은? (2반 이강현, 백준기)

퀴즈 O X 퀴즈 (3반 조한별)

1. 세병관은 국보 제305호 이다. ()
2. 세병관은 이순신의 전공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졌다. ()
3. 경복궁 경회루와 여수 진남관과 더불어 국내 현존하는 목조건물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를 자랑한다. ()
4. 애완동물과 함께 세병관을 방문해도 된다. ()

미션 세병관을 방문하고 난 후의 소감을 짧게 적어봅시다. (30330 조한별)



충렬사 (2반 이강현, 백준기)

1972년 06월 26일에 부산유형문화재 제 7호로 지정되었다. 임진왜란때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을 비롯하여 부산에서 순절한 호국선열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다. 현재 충렬사에는 충렬사 본전과 의열각, 기념관, 정화기념비, 송상현공 명언비, 충렬탑 등의 유적이 있다. 지금도 해마다 5월 25일에 충렬사에서 제사를 지낸다.



충렬사의 역사 (3반 이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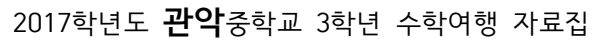


1972년에 부산광역시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다. 임진왜란 때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1551~1592), 부산진 첨절제사 정발(1553~1592)을 비롯해 부산에서 순절한 호국선열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1605년(선조 38) 당시의 동래부사 윤환(尹 暄)이 동래읍성 남문 밖 농주산에 송상현의 위패를 모신 송공사(宋 公 祠)를 지어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 그뒤 1624년(인조 2)에 선위사 이민구의 청으로 충렬사라는 사액이 내려져 송공사는 충렬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1652년(효종 3) 동래부사 윤문거가 당시의 사당이 좁고 저습하며, 송상현의 학행과 충절을 후학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지금의 충렬사 자리로 이전하면서 사당을 세운 뒤 강당과 동, 서재를 지어 안락서원이라고 하였다. 1709년(숙종 35)에는 옛 송공사 터에 별사를 지어 송상현과 정발이 순절할 때 함께 전사한 동래교수(東 萊 敎 授) 노개방(盧 蓋 邦), 양산군수 조영규, 향리 송백 등의 위패를 모셨다가 1736년(영조 12) 충렬사로 옮겨 함께 모셨다. 일제감정기에는 서원과 사우를 보수하지 못했으나 1976년부터 1978년까지 중수와 보수공사를 했다. 충렬사에는 충렬사 본전과 의열각, 기념관, 정화기념비, 송상현공 명언비, 충렬탑 등의 유적이 있다. 지금도 해마다 5월 25일에 제사를 지내고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中 丁 日)에 충렬사 안락서원에서 제향을 올린다.

송상현공 명언비 (2반 이강현, 백준기)




동래성을 포위한 왜군이 싸우다 죽기 싫다면 길을 비키라고 한 것에 송상현공이 자신의 기개와 의지를 다하여 써보였다는 글귀로, 5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의 기개가 느껴지는 비석이다. 앞면에는 6자의 한자가 쓰여 있는데, 이는 '싸우다 죽는 것은 쉽지만, 길을 빌려주는 것은 어렵다'를 뜻한다.



미션 충렬사의 모습을 간단히 스케치해보자.(헛 또 그려봐라)

1. 충렬사는 ()왕때 지어졌다.
2. 충렬사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3. 충렬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 3명만 쓰시오.()

[illegible]



서호시장 (3반 최재혁)



통영의 시장은 살아 있다. 방금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해산물로 시장 안은 활기찬 기운이 가득하다. 강구안의 새벽 시장으로 유명한 서호시장은 통영 사람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양대 재래시장으로 다채로운 식문화를 보여준다. 새벽에 일어나 텃밭에서 캐온 채소와 새벽 바다에서 잡아온 생선이 풍성하게 쌓여 있는 곳, 재래시장의 치열한 삶과 구수한 맛이 살아 있는 곳이다.

(3반 최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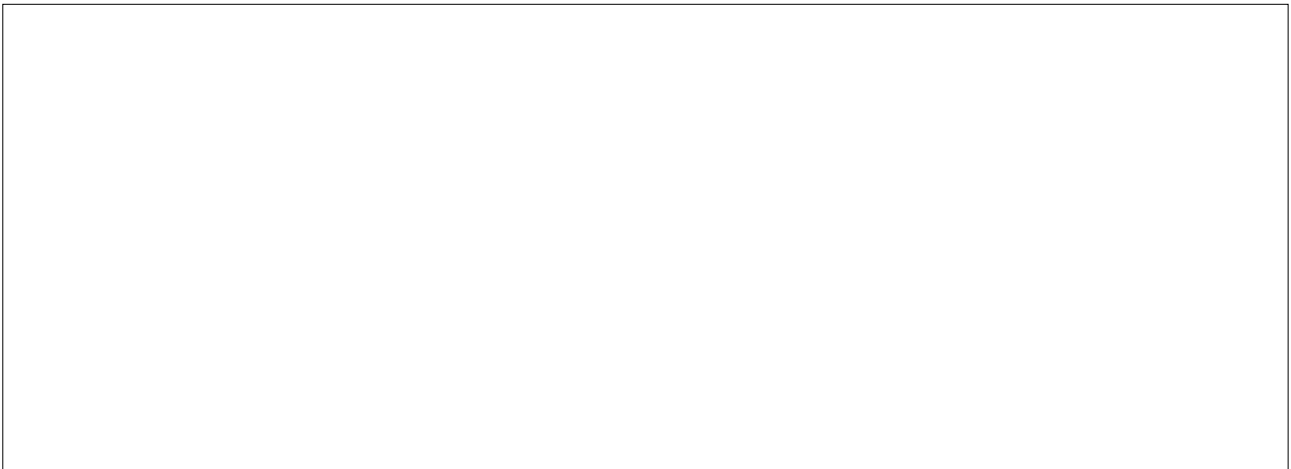
서호시장은 새벽에 장이 열리는 부지런한 시장이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서호만 바다를 매립해서 조성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정시장이라 불렀고, 새터라는 지명을 따라 새터 시장이라고도 불렀다. 아침시장이라는 의미로 아침제자라고도 불렀다니 서호시장은 예부터 통영의 아침을 신명나게 열어온 시장임이 틀림없다. 서호시장 끝자락에 가면 새벽 4시에 나와 오후 7시까지 시장을 지키는 마산상회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 56년 동안 한결같이 서호시장의 새벽을 지켜온 터줏대감이다. 봄에는 썩과 섬나물, 여름에는 매실.마늘.옥수수, 겨울에는 유자 등 통영을 둘러싸고 있는 섬마을에서 온갖 싱싱한 채소와 해산물을 가져다 판다. 또 '원조시락국'은 서호시장 입구에 있다. 50년을 지켜온 소박한 식당의 기다란 나무 테이블에 앉아 통영 사람들과 함께 국밥을 먹는다.

서호시장의 먹거리 (3반 김재원)

통영 서호시장의 먹거리로는 할매 우짜, 시래기국, 훈이 시락국, 빼때기 죽, 원조 시락국, 충무꼬지 김밥 등이 있다. 서호시장은 보통 아침식사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며 한식 종류의 음식들이 많다.



미션 서호시장에서 먹은 한식 인증샷 찍기. (3반 반진영)



중앙전통시장

(5반 김영옥, 이재열, 이경섭, 강효리, 김하늘)



통영중앙시장은 한려수도의 관문인 통영에 위치한 전통시장이다. 동피랑 벽화마을과 강구안 문화마당 등 유명 관광 명소와 가까이 있어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을 상대로 활어를 비롯해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시내 중심에 있는 중앙전통시장은 젊음의 거리와 이어져 있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혼수품을 주로 거래하고 있으며 다양한 먹거리로 팔고 있다.

개요

(5반 김영옥, 이재열, 이경섭, 강효리, 김하늘)

통영이 역사에 등장한 것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통제영을 설치하고 나서부터이다. 통제영에서 유래했다. 통영은 1900년까지 고성에 속해 있었고, 인접한 거제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이름이 바뀌었다. 한때는 이순신의 시호를 따서 충무가 되기도 했고, 오늘날의 통영시가 된 것은 1995년의 일이다.

통영의 시장은 통제영의 관리를 받으며 개설되었고, 매월 2, 7일에 장이 섰다. 통영의 시장은 오랫동안 번영을 누렸는데 특산물로는 썸뱅이와 쌀, 해산물 등이 있었다. 또한 통제영의 영향으로 전복이나 소라, 조개껍데기 등으로 만드는 나전칠기가 대표 특산물이 되어 오늘날까지 명맥을 잇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통영시장을 비롯해서 아침시장, 가축시장이 있었고, 이에 더해 일제가 운영하는 부산수산주식회사 통영지점, 통영수산주식회사, 통영식량품판매조합 등이 개설되어 있었다. 통영의 중심 시장인 통영중앙시장은 2000년대에 들어서 침체기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 주변에 형성된 동피랑 벽화마을, 강구만 문화마당 등이 관광지로 부각되면서 시장도 활력을 되찾았다. 또한 서호시장은 과거 뱃사람과 부두 노동자들을 위해 새벽에 열리는 시장으로, 2009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통영중앙시장이 원조인 먹거리

통영 중앙 시장은 정말 많은 먹거리들로 유명하단거 다들 알고 있겠지? 그리고 제일 궁금한 부분도 시장의 먹거리일거야! 그래서 너희를 위해 준비 했어. 통영 중앙 시장의 먹거리 모음!

1. 충무김밥

통영이 원조인 충무김밥! 이제는 휴게소에서도 팔고 있어서 다들 알고 있을거라 생각해! 통영 중앙시장과 그 근처에는 정말 많은 충무김밥 집이 있어! 아마 통영이 원조여서 그런 듯 해. 근데 평소에 먹는 김밥은 안에 재료가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충무김밥은 따로 되어 있냐고? 그건 충무김밥은 어부들이 바다에 나갈 때 김밥을 싸가면 해풍에 상하기 쉬워서 밥과 무침반찬을 따로 싸 먹은 것에서 유래되어서 그래! 우리의 점심인 충무김밥, 알고 먹으면 더 좋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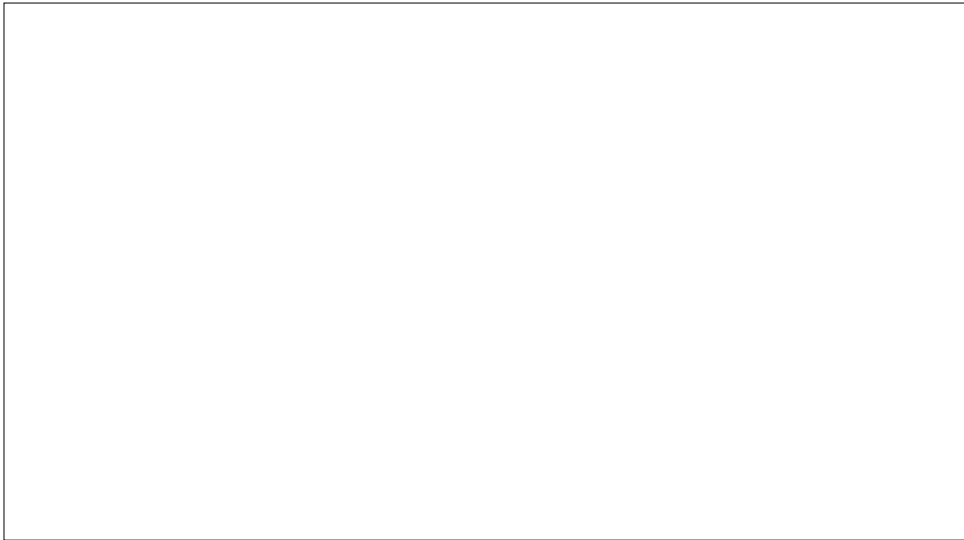


2.꿀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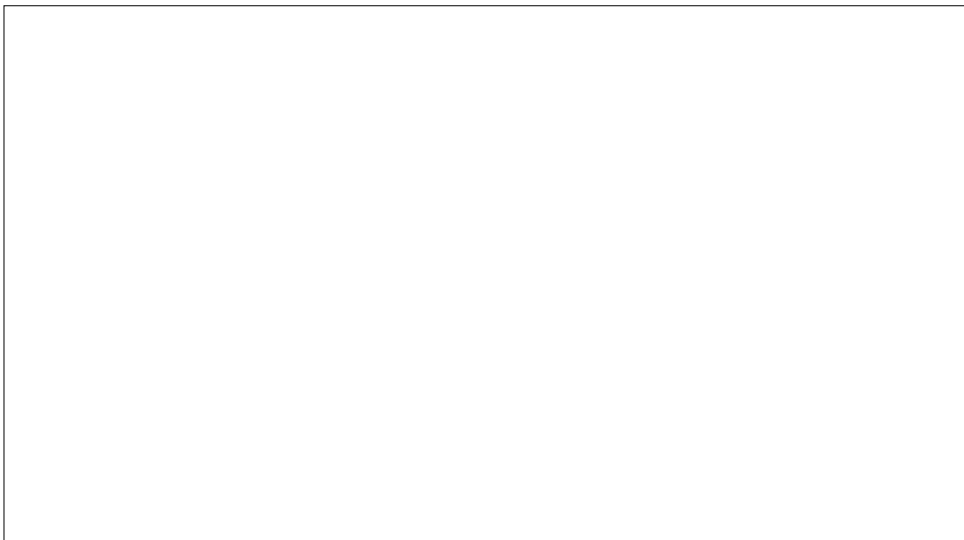
꿀빵 또한 충무김밥처럼 통영이 원조야! 원조는 통영의 오미사 꿀빵이라고 해. 꿀빵은 안에 팔이 들어 있고 겉에는 꿀과 검은 깨가 있는 통영의 빵이지. 현재는 충무김밥 집처럼 꿀빵 가게가 많아져서 통영 곳곳에서 꿀빵을 먹을 수 있어 최근에는 유자맛, 고구마맛처럼 다양한 종류의 꿀빵도 나오고 있다고 해 가격은 대부분 1개에 1천원 정도 한다고 해! 냉장보관도 가능하다고 하니 가서 하나씩 달달한 꿀빵을 맛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미션 원조 시락국 사진 찍기 (3반 최원재)



미션 중앙 시장 앞에서 사진 찍기 (3반 최원재)



김춘수 생가 (3반 조한별)

김춘수(1922~2004년) 생가는 통영시 동호동 남망산공원 입구에 위치한 동산약국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골목길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옛날 김춘수 선생이 살았던 자리에 표석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있으나 옛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008년 3월에는 봉평동 옛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4층에 '김춘수 선생 유품전시관'으로 '꽃의 시인' 김춘수 선생의 유품전시관을 개관하였다.



김춘수 시인의 대표적인 시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3반 조한별)



시인. 사물의 이면에 내재하는 본질을 파악하는 시를 써 '인식의 시인'으로도 일컬어진다. 평론가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주요 작품으로 <꽃>, <꽃을 위한 서시>등이 있다.

본관은 광산이며, 1922년 11월 25일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났다. 1935년 통영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공립제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1939년 경기공립중학교를 자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1940년 니혼대학 예술학과에 입학하였다. 1942년 일본 천황과 총독을 비판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퇴학 조치를 당하고 한국으로 송치되었다. 1946~1948년 통영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1949~1951년에는 마산중학교에서 재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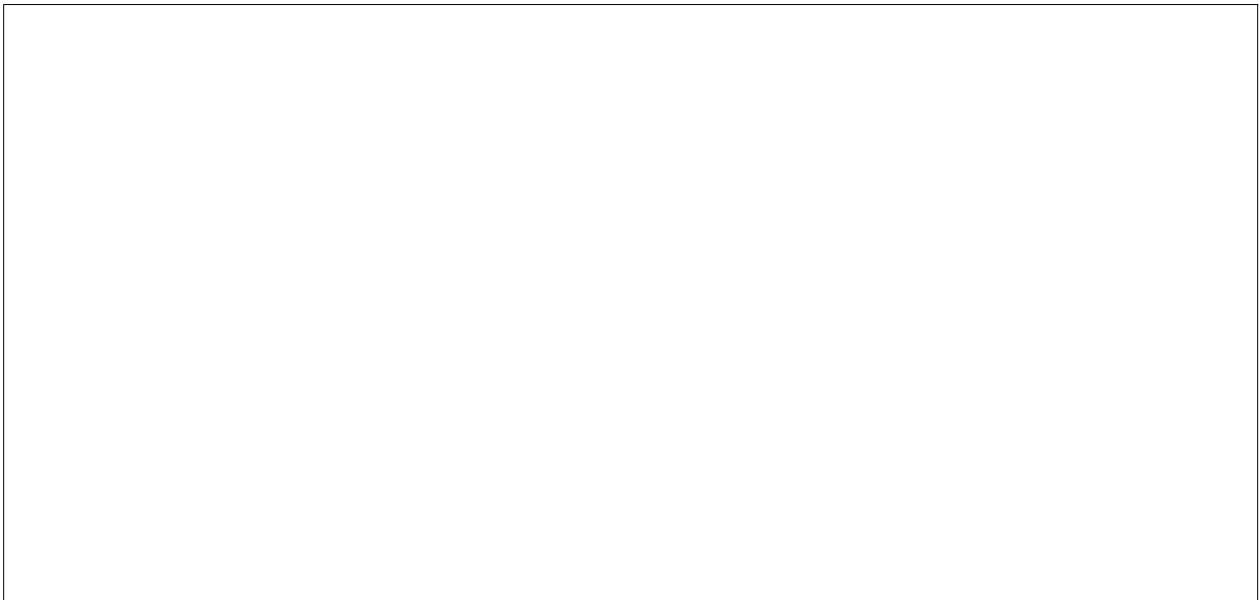
1964~1978년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1979~1981년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1981년 제11대 전국구 국회의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 선출되었으며, 1986~1988년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지냈다.

퀴즈 O,X 퀴즈 (3반 조한별)

김춘수 시인의 대표적인 시는 '꽃' 이다. → ()

김춘수 시인의 생가는 통영시 미륵산에 위치해 있다. → ()

미션 김춘수 시인의 생가 앞에서 꽃받침 포즈를 하고 사진을 찍어 붙여봅시다. (3반 조한별)



퀴즈 괄호안의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3반 조한별)

1.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 지지 않는 ()이 되고 싶다.
2. 내가 ()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이 되었다.

박경리 기념관 (1반 권소연 김지우 김혜림 마은지 이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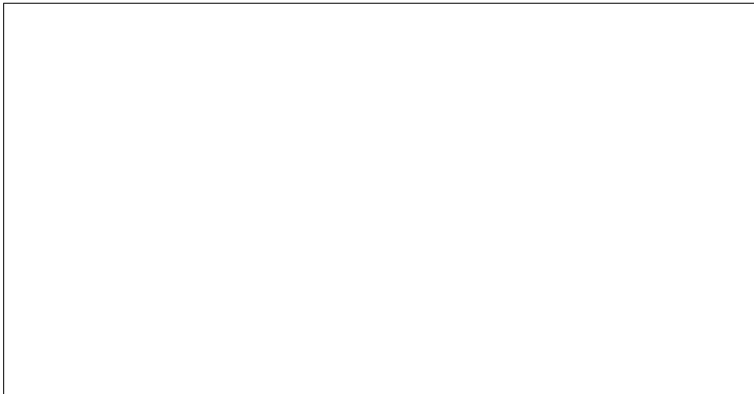
박경리선생의 고향으로 선생문학에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한 고향 통영을 소개함으로써 선생의 문학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건립한 곳이다.

박경리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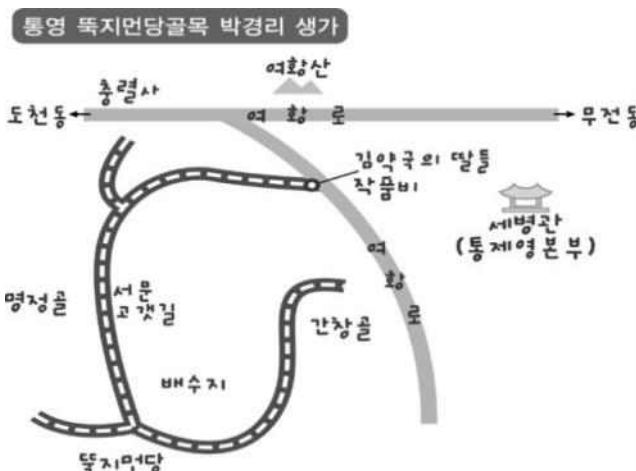


1926년 10월 28일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났다. 1955년에 김 동리의 추천을 받아 단편 《계산(計算)》과 1956년 단편 《흑 흑백백(黑黑白白)》을 《현대문학》에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나왔다. 1969년 6월부터 집필을 시작하여 1994년에 5부로 완성된 대하소설 《토지(土地)》는, 한국 근·현대사의 전과정에 걸쳐 여러 계층의 인간의 상이한 운명과 역사의 상관성을 깊이 있게 다룬 작품으로 영어·일본어·프랑스어로 번역되어 호평을 받았다. 1957년 현대문학 신인상, 1965년 한국여류문학상, 1972년 월탄문학상, 1991년 인촌상 등을 수상하였고, 1999년에는 한국예술평론가협회에서 주최한 20세기를 빛낸 예술인(문학)에 선정되었다. 6·25전쟁 때 남편이 납북되었으며 시인 김지하가 사위이다. 2008년 5월 5일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퀴즈 박경리 생가(기념관)에 가서 인증샷을 찍어보자. (30123 김경민)



미션 박경리 생가의 위치를 표시해보자. (30123 김경민)





전혁림 미술관 (1반 최승일)



전혁림 미술관은 통영의 미륵도 용화사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있으며, 화백이 1975년부터 30년 가까이 생활하던 집을 헐고 새로운 창조의 공간으로 신축한 건물로서 2003년 5월 11일 개관 하였다. 건물의 외벽은 전혁림화백의 그림과 아들 전영근의 작품을 20×20Cm의 세라믹타일로 제작7,500여개로 조합하여 통영의이미지와 화백의 예술적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3층 전면의 벽은 화백의 1992년 작품 창(Window)을 타일 조합으로 재구성한 대형 벽화로 구성되어 있다.

전혁림의 작품 (3반 조한별)

달과 호수 (1955)	
어촌 풍경 (1957)	
충렬사 (1950)	

몽유도 (2008)	
꽃과나비 (2008)	
창 (1993)	

퀴즈 O,X 퀴즈 (30330 조한별)

1. 전혁림 화가는 1923년 1월 21일에 태어나셨다. ()
2. 전혁림 미술관에는 전혁림의 작품 80점과 관련자료 50여점을 상설전시 하고 있다. ()

퀴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봅시다. (30330 조한별)

1. 전혁림 화가는 독특한 색채와 풍경을 이루는 작품으로 () 또는 ()로 알려져 있다.
2. 전혁림 화가는 고향 ()과 ()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

청마문학관 (4반 윤서영)



청마문학관은 청마 유치환 靑馬 柳致環 시인 (1908~1967)의 문학정신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2월 1,220평의 부지에 문학관(전시관)과 생가 (본채, 아래채)를 복원, 망일봉 기슭에 개관하였다. 전시관(51평)에는 청마의 삶을 조명하는 '청마의 생애'편과 생명 추구의 시작을 감상하고 작품의 변천, 평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청마의 작품 세계'편, 청마가 사용 하던 유품들과 청마관련 평론, 서적 논문을 정리한 '청

마의 발자취'편, '시 감상코너'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마의 유품 100여점과 각종 문헌자료 350여점이 전시되어있다.

유치환 (4반 윤서영)

호는 청마(靑馬)이고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났다. 통영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도요야마[豊山]중학교에서 4년간 공부했다. 그리고 귀국하여 동래고보를 졸업하고 연희전문 문과에 입학하였으나 1년 만에 중퇴하였다. 유치환은 정지용의 시에서 감동을 받아 시를 쓰기 시작했고 1931년 《문예월간》지에 시 《정적(靜寂)》을 발표함으로써 데뷔하였다. 1939년 제1시집 《청마시초(靑馬詩抄)》를 간행하였다.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는 허무와 낭만의 절규 《깃발》을 비롯한 초기의 시 53편이 수록되어 있다. 1940년에는 일제의 감시를 피하여 만주로 이주하고 그곳에서의 각박한 체험을 읊은 시 《수(首)》 《절도(絶島)》 등을 계속 발표하였다.

대표시 (4반 윤서영)

깃발

유치환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흐르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理念)의 꺾대 끝에
애수(哀愁)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아는 그는.

퀴즈 O X 퀴즈 (4반 윤서영)

1. 청마는 통영에서 태어나서 통영에서 계속 살았다. ()
2. 청마는 정지용의 호이다. ()
3. 대표작으로는 <깃발>, <수> 등이 있다. ()
4. 청마문학관에서는 청마의 유품과 문헌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



미션 전시된 유품 중 하나 그리기 (4반 윤서영)



윤이상 문학관 (5반 김태현, 방지혁, 안도원, 안치성, 박선영)



윤이상 생가 터에는 윤이상 기념공원이 있다. 윤이상 기념공원은 세계적인 윤이상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다. 기념공원은 윤이상 관련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 카페와 기념품샵 그리고 로비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진 에스파체, 각종공연과 세미나 등 실내행사가 가능한 메모리홀, 야외행사장인 경사광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윤이상 기념공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목요일, 법정 공휴일의 익일, 설 및 추석 연휴에 쉰다.

윤이상은 1917~1995년까지 살았던 세계적인 현대 작곡가이다. 윤이상은 어린 14세부터 독학을 시작하였다. 졸업 직후 네덜란드의 빌토벤과 독일의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에서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과 <일곱 악기를 위한 음악>이 초연되어 호평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독일에 체류하게 되었고 유럽 각지에서 활동을 하다가 1964년 독일 포드기금회의 요청으로 베를린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 1990년 평양에서 남북한 합동공연은 하였으며 사망할 때까지 베를린 아카데미 위원으로 활동 했으며 살아있었을 때 현존하는 유럽 5대 작곡가로 뽑히기도 하였다. 동요, 오페라 등 다양한 종류의 현대 음악을 작곡했으며 그 수는 150개가 넘는다.



부 록

우리의 일정 정리 : 우리가 실제로 다닌 일정을 정리해 봅시다. (한 시간에 한 장소 정도)
함께 다닌 친구들 :

<첫째 날> 5/22(월) : 부산

시간	장소	무엇을 했나?

<둘째 날> 5/10(화) : 통영

시간	장소	무엇을 했나?

<셋째 날> 5/24(수) : 부산

시간	장소	무엇을 했나?



부산과 통영, 마을 만들기

부산과 통영을 돌아다니면서 바꾸어야 할 것과 바뀌지 말아야 할 것 3가지씩 적고 사진을 찍거나 스케치를 해 봅시다. (사진은 수학여행 후 콘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첫째날 : 부산에서

	바꾸어야 할 것	바뀌지 말아야 할 것
장소 (구체적으로)		
그림 혹은 사진		
설명 (2줄)		
장소 (구체적으로)		
그림 혹은 사진		
설명 (2줄)		
장소 (구체적으로)		
그림 혹은 사진		
설명 (2줄)		



둘쨋날 : 통영에서

	바꾸어야 할 것	바뀌지 말아야 할 것
장소 (구체적으로)		
그림 혹은 사진		
설명 (2줄)		
장소 (구체적으로)		
그림 혹은 사진		
설명 (2줄)		
장소 (구체적으로)		
그림 혹은 사진	4	
설명 (2줄)		



셋째날 : 부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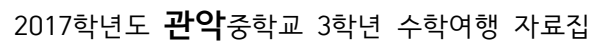
	바꾸어야 할 것	바뀌지 말아야 할 것
장소 (구체적으로)		
그림 혹은 사진		
설명 (2줄)		
장소 (구체적으로)		
그림 혹은 사진		
설명 (2줄)		
장소 (구체적으로)		
그림 혹은 사진		
설명 (2줄)		



여행은 추억입니다.

여행을 가면서 사용했던 안내서나 지도, 티켓 등을 붙여보자. (305 이승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수학여행을 마치고

1. 자료집을 만들고 수학여행을 다녀오니

2. 친구들에게 자신이 미리 조사한 부분을 설명해 줍시다. 친구들의 설명을 정리해 봅시다.

누가 설명했나?	무슨 내용을 얘기해 줬나?

3. 친구들의 설명을 들으며 다니니

4. 수학여행을 하며 느낀점 (어려웠던 점, 재미있었던 점 등등)



수학여행 자료집을 만들기까지

<역사 수업 시간 학습지>

수학여행 프로젝트 학습지1 3학년 ()반 ()번 ()

1. 모둠 만들기 : 학급별 5~6개 모둠, 모둠별 4~5명

모둠원					
역할					

2. 용두산공원 주변 지도에서 아래 장소 표시

(①자갈치시장, ②국제시장, ③보수동책방골목, ④부산타워, ⑤부산근대역사관, ⑥40계단문화관)



3. 통영시 강구안 주변 지도에서 아래 내용 표시

(①강구안, ②통영시립박물관, ③서피랑, ④충렬사, ⑤세병관, ⑥동피랑, ⑦남망산조각공원)



4. 부산역 주변 지도에서 아래 내용 표시

(①부산역, ②차이나타운, ③화교학교, ④초량초, ⑤168계단, ⑥이바구충전소, ⑦김민부전망대, ⑧소림사)



5. KTX에 대하여

6. 부산, 통영의 일반 개황

부산	
통영	



7. 답사 세부 지역

* 각 지역별로 방문하고 싶은 곳을 주제에 맞게 각 5군데 조사하기(각 영역별 1곳 이상 반드시 포함)

- 역사 : 박물관, 역사유물전시관, 유적지, 절 등
- 지리 : 자연 경관(국립공원 등), 산업 경관(시장, 산업시설) 등
- 문화 : 미술관, 각종 체험활동, 맛집 등

* 특징은, 위치, 입장료, 가격, 그 장소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을 자유롭게 적으면 됩니다.

* 의무 방문 지역(태종대, 미륵산 케이블카, 동백섬)은 간단한 특징만 적으면 됨

날짜	장소		특징
5/22 (월) 부산	중구 (용두산 공원 주변)	점심 식사	()
	태종대		
5/23 (화) 통영	미륵산 및 한려수도 케이블카		
	강구안 주변	점심 식사	()
5/24 (수)	동백섬		
	부산역 건너편 차이나타운 및 초량 이바구길	점심 식사	()

수학여행 학습지2

모듬별 코스 계획

(1일차 : 용두산공원 일대, 3시간)

3학년 ()반 (모듬원 :

)

* 동선(이동 경로)을 색깔 펜을 사용하여 표시하고, 각 장소의 특징을 간단하게 적기



* 우리 모듬 동선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모둠별 코스 계획 (2일차 : 통영 강구안 일대, 5시간)

3학년 ()반 (모둠원 :)

* 동선(이동 경로)을 색깔 펜을 사용하여 표시하고, 각 장소의 특징을 간단하게 적기



* 우리 모둠 동선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수학여행 학습지2

모듬별 코스 계획 (3일차 : 부산역 일대, 2시간)

3학년 ()반 (모듬원 :)

* 동선(이동 경로)을 색깔 펜을 사용하여 표시하고, 각 장소의 특징을 간단하게 적기



* 우리 모듬 동선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국어 수업 학습지>

1단계 자료집에 들어갈 내용 생각해 보기

*우리가 짬 코스에서 체험 장소 별 알아야 할 내용을 과목과 관련지어 생각해 봅시다. 실제 그 장소보다 더 큰 범주에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내용을 꼭 넣어주세요.

<예시>

시간	장소	과목	장소와 관련 지어 자료집에 실을 내용
11:00	부산역	과학	부산역 건물의 친환경적인 요소
11:15	용두산 공원	역사 기타	우리나라에 공원이 도입된 역사 공원과 정원의 차이점

1) 5월 22일 (월) : 부산

시간	장소	과목	장소와 관련 지어 자료집에 실을 내용
11:00	부산역		
15:00	태종대	사회	해안단구 등 해안지형의 다양한 사례 설명

2) 5월 23일 (화) : 통영

* 다음 인물 중 두 사람 이상에 대한 탐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순신:역사’ 기본 / 전혁림:전혁림미술관(미술전혁림미술관), 윤이상:윤이상기념관(음악), 김춘수:김춘수 생가, 유치환:청마문학관, 백석, 김상옥, 박경리:박경리 생가(문학) 기타 통영과 관련된 인물

시간	장소	과목	장소와 관련 지어 자료집에 실을 내용
9:30	미륵산 케이블카		

3) 5월 24일 (수) : 부산

시간	장소	과목	장소와 관련 지어 자료집에 실을 내용
9:00	동백섬		

2단계 자료집의 틀을 구성해 봅시다.

- 1) 수학 여행 개괄 : 부산, 통영 전반에 대한 소개, 일정에 따른 코스 표시한 지도
- 2) 수학 여행지 장소별 안내 :

장소 안내와 사진	장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꼭 알아둡시다	장소를 과목과 관련지은 내용 (인물 관련 정보 포함)
퀴즈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 선긋기, 색칠하기, 움직인 동선 안내도에 표시하기, 삼행시 짓기, 괄호 넣기 등
수행할 미션	어느 지점에서 어떠한 포즈로 사진 찍기, 어떤 것 그림으로 그리기, 안내 팸플렛 오려 붙이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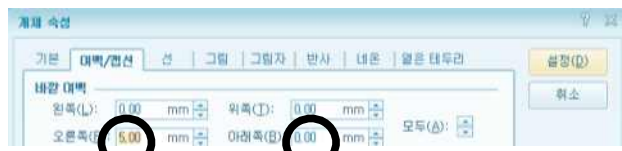
3) 기타 : 안전예절 관련 유의사항(식사할 때 안전, 도보 및 차량 이동 시 안전, 마을이나 유적지 방문 시 예절 등등. 한 쪽 이상 반드시 넣을 것!) 일기 쓸 칸(반드시!), 메모란, 준비물 체크 등 창의적으로 덧붙여서

● 한글 파일에 사진과 글자가 나란히 오도록 하는 방법

- 1) 사진을 클릭
- 2) [서식]-[개체속성] 혹은 **[Ctrl]+N,K**
- 3) [기본]-[위치]-가장 왼쪽 선택



- 4) [여백]-[오른쪽]과 [아래쪽]-5mm 입력



한 장소에 대해 사진(A4 1/2크기 넘지 않게), 설명, 꼭 알아둡시다, 퀴즈, 미션이 한 세트입니다~

<지역 개괄 예시>

◎코스개요: 우리가 여행할 곳? (6만 곡을 주 정민재 최수빈)



- 1일차
- 2일차
- 3일차
- 한반도 지형(선암마을)
- 용연동굴
- 석탄 박물관
- 삼척 해안레일바이크
- 온달산성
- 영월 청령포
- 동강 레프팅
- 추암해수욕장(호대바위)



용 연 동 굴



피곤한 첫째날이 끝나고~~ 드디어 즐거운 둘째날을 처음으로 장식하게 될 장소는 용연동굴이야~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에 위치하고 동시에 백두대간의 중추에 위치하는 용연동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고지대(920m)에 위치한 석회동굴인데 안에는 임진왜란 때 쓰여진 붓글씨, 분수 등등 정말 볼거리가 많아. 그리고 특이한 점은 사람이 안에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야.

그니까 다시 말하자면 다른 동굴과는 달리 추움을 걱정하며 두꺼운 옷을 챙길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 편리하지 않니?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점 때문에 의병의 본부역할도 하였고 국가 변란 때 피난처로도 사용되었다고 해. 신기하지? 그렇다면 이렇게 편리한 용연동굴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일단 석회동굴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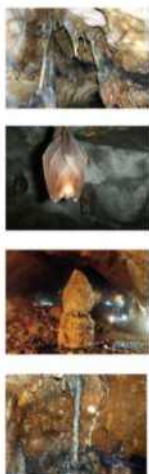
석회암 동굴이란? (7반 김다영 박미선 박예민 이해리)



석회동굴에서 볼 수 있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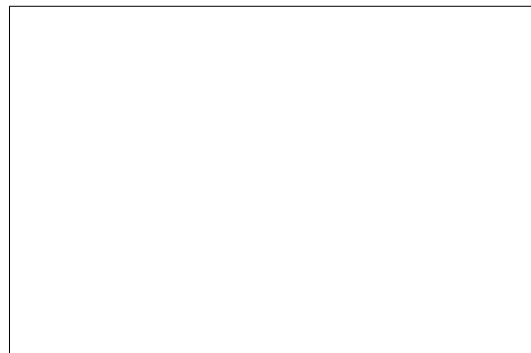
종유석	동굴의 천장에 고드름처럼 매달린 광물질.
석순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들어 있던 석회 물질이 동굴 바닥에 쌓여 위로 자란 돌이다.
석주	석회동굴의 천정에서 종유석이 바닥까지 성장하여 석순과 만나서 생긴 돌기둥이다.

퀴즈 Quiz Quiz! (8반 김진우 안수진 유예본 정선진) 용연동굴 안에는 다양한 동굴 동물들과 함께 각종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이 준비해있다. 다음 은 용연동굴 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름과 설명에 맞는 그림을 찾아 짝지어 보시오.



- 용연동굴 석순 : 천정이나 벽면에서 떨어지는 지하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화석물
- 관박쥐 : 용연동굴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동굴동물
- 용연동굴 종유석 : 동굴천장에서 석회질이 녹아 흘러 고드름같이 매달린 형태
- 용연동굴 석주 : 종유석이 바닥까지 성장하여 석순과 맞닿은 돌기둥

미션 용연 동굴 안에서 모둠원과 설명 표지판이 나오도록 인증샷을 찍어보자.





3단계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봅시다. (아래 표로 모자르면 공책을 이용하세요)

– 부산/통영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 넣어봅시다.

책 제목	작가,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 쪽수	내용 요약

<도서관에 구비해 놓은 책들>

부산	책제목	글쓴이	출판사
1	부산의 장소를 걷다	부산대학교한국민족 문화연구소	소명출판
2	부산학 개론	부산학 교재편찬위원회	호밀밭
3	부산의 역사와 문화	최연주	신아사
4	부산 원도심은 페스트리다	민주시민교육원	소요you
5	국제시장	김호경	21세기북스
6	이번엔 부산(Enjoy 국내여행 시리즈 6)	구지선	넥서스북스
7	진짜 부산 100	문철진, 최영지	미디어샘
8	부산 장소를 꿈꾸다	김미선	전망
9	부산은 넓다	유승훈	글항아리
10	부산의 역사(시민을 위한)	부경역사연구소	선인
11	부산 100배 즐기기(15-16 최신판)	김봉수	알에이치코리아
12	통일의 눈으로 부산을 다시보다	김동완	너나드리
13	부산 속 건축	이승헌	안그라픽스
14	한국 도시디자인 탐사	김민수	그린비
15	손영운의 우리 땅 과학 답사기1	손영운	살림출판사
16	지리교사 이우평의 한국지형산책1	이우평	푸른숲
17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문학 답사 2	국어교사 20명	창비

통영	책제목	글쓴이	출판사
1	동피랑 아이(꼬리가 보이는 그림책 4)	이담원	리젼
2	내가 본 진짜 통영	최정선, 이정미	북웨이
3	골목 안 통영	최강문	올버
4	통영(오늘의 서정시 38)	이중도	오늘의 시학
5	통영 느리게 걷기	이경원	페이퍼북
6	통영은 맛있다	강제윤	생각을 담는집
7	통영 거제 가자	신중숙	테라
8	춤추는 마을 만들기	윤미숙	남해의 봄날
9	하루쯤 소도시 여행	박명예	디스커버리미디어
10	통영을 만나는 가장 멋진 방법:예술기행	통영길문화연대	남해의봄날
11	통영 섬 부엌 단디 탐사기	김상현	남해의 봄날
12	인문도시 통영, 그 아름다움에 빠지다	정은영	지식공감
13	오래된 도시의 골목길을 걷다	한필원	휴머니스트



통합	책제목	글쓴이	출판사
1	대한민국 도시여행	이병학	컬처그라퍼
2	지리쌤과 함께하는 우리나라 도시여행	전국지리교사모임	폭스코너

4단계 모자란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 찾아봅시다.

- 남이 쓴 리포트는 인용하면 안 돼요!
- 출처 불분명 자료는 인용하면 안 돼요! (지식인 사용하지 맙시다)
- 구글을 찾으세요. (www.google.co.kr)
- 부산/통영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 넣어봅시다.

사이트 제목 사이트 주소	글(기사) 제목 작성자	내용 요약

5단계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지와 미션을 만들어 봅시다.

장소	정리할 내용	퀴즈	수행할 미션
예) 청령포	하천 지형의 특징 / 단종의 일생 / 청령포 조감도	OX 퀴즈	노산대 풍경 그리기

6단계 제출과 평가

1) 제출

-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올리기
(차례의 항목은 7개 이상(7곳 이상의 장소가 있어야 함. 장소별로 미션, 퀴즈 하나씩), 표지, 차례 제외하고 내용만 20쪽 이상 분량)

- 1면 : 표지 / 2면 : 차례 / 3면 : 안전, 성폭력 등 유의사항 / 4면 : 부산, 통영 소개, 코스 안내
- 파일은 홈페이지 국어방에 올리기 (파일명 : 수학여행1반01김가가02김나나03김다다04김라라.hwp)

2) 평가 (수행평가 20점 : 사전 준비 10점, 수학여행 당일 활동 및 사후 보고서 10점)

자료집 만들기 10점	+	활동 및 자료집 채우기 10점
① 설명이 쉽고 재미있는가? <5점>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넣었으면 감점, 쉬운 말로 풀어 쓸 것)		수학여행 하면서 활동한 후, 자료집 채워오기 (각 장소별 미션과 퀴즈



- ② 퀴즈, 미션의 내용이 알차고 참신한가? <3점>
- ③ 읽기 좋게 편집 했는가? <1점>
- ④ 분량(내용만 20쪽 이상)을 지켰는가? <1점>

풀기, 부록 부분 다
채워오기)

7단계 다른 모둠이 만든 자료집을 돌려 읽고 평가해 봅시다.

조/모둠원	잘한 점 (눈에 띄는 점)	부족한 점 (보완해야 할 점)	점수	등수

부산과 통영에서 또 다른 마을을 찾다



* 다른 모듈 자료집을 읽고 평가 기준에 맞추어 채점 후 등수를 매긴다. 등수 총계로 점수 부여.



8단계 '수학여행 자료집 만들기' 를 마치고

3학년 반 번 이름 :
)

1. 우리 모듬원은(
2. 우리 모듬 자료집에 대한 간단한 설명

3. 내가 한 일, 모듬원들이 한 일 (별점과 이유: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 과정에서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름	별 점	이 유
	☆☆☆☆☆	
	☆☆☆☆☆	
	☆☆☆☆☆	
	☆☆☆☆☆	
	☆☆☆☆☆	

4. 자료집 만들기를 준비하면서 느낀점 (어려웠던 점, 재미있었던 점 등등)

5. 친구들의 자료집을 보며 느낀점

* 빈칸없이 성의껏 작성해 주세요. 이 학습지는 수행평가 점수에 가/감됩니다.



수학여행 자료집을 만들고

또 한 권의 수학여행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해 봤던 방식이라 훨씬 매끄럽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연휴 복병이 있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니 수업은 몇 시간 없었고 수학 여행! 자료집을 완성하느라 무척이나 고생했을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공을 돌립니다. (앗, 수감 소감 같군요!)

독일의 공립학교 ‘헬레네랑에’의 이야기를 다룬 책 ‘만들고 행동하고 표현하라’라는 책을 읽고 교육 여행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배우다는 것은 교실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 현상을 경험하고 관찰하며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진정한 지식을 얻는 것이지요.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일을 통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단지 ‘학습 자료’가 아니라 학교 밖 세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고 싶습니다. 헬레네랑에 학교에서는 학생이 9학년이나 10학년이 되면 낯선 곳에서 혼자 여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여행을 스스로 계획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이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여행갈 지역과 장소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연습한 것을 바탕으로 코스도 짜고 아는 내용을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 주며 친한 친구들과 자유롭게만 알차게 다니는 여행. 이를 위해 역사 수업 시간에 부산과 통영의 개괄을 조사하고 각각에서 둘러볼 만한 곳들을 조사했습니다. 국어 시간에는 이를 다른 과목과 연결하여 각 장소에서 더 배워야 할 요소들을 뽑아냈고, 그것을 자료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의 자료집을 서로 돌려보며 평가를 했고, 국어 선생님들이 그것을 다시 편집하여 이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부산과 통영에서 자신이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모둠별 원하는 코스대로 돌아다니며 교실에서 배운 것들을 실생활에 적용시켜 볼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낯선 곳에 혼자 떨어지더라도 씩씩하게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촉박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학생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 한뼘 더 성장하기를 바래 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방식의 교육여행을 허락해 주신 교장 선생님, 음으로 양으로 도움 주신 교감 선생님, 수업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던 교과 선생님들과 이것저것 챙기느라 고생하셨던 3학년 담임 선생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2017년 5월 18일

3학년부를 대표하여 구 본 희 씀